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 정 아

#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 정 아

#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흥 식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 정 아

서정아의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유	원 장 _	ो	봉	주_	(인)
부위원장 _		홍	백	의	(인)
위	원 _	०]	상	균	(인)
위	원 _	정	익	중	(인)
위	위	조	홋	싀	(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삶의 질 통합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사회자본과 국가수준에서 사회지출로 측정된 사회정책이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후기 청소년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수준, 국가수준의 설명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후기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적 복지감을 행복감, 생활만족도로 살펴보았으며 사회자본의 하위변인을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으로 사회지출의 하위변인을 고등교육지출, 훈련 지출로 살펴보았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이며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은 1인당 GDP, 청년실 업률, 소득불평등도이다.

개인수준 분석 자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80여 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5년마다 주관적 복지감과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항을 조사해온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이다. 국가수준 분석 자료는 OECD 교육지표(2008), OECD 사회지출(2007),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2012)이다.

개인수준 분석대상은 19-24세 후기청소년이며 국가수준 분석대상은 16개 OECD 국가이다. 분석에 포함된 후기 청소년 수는 총 1,617명이며 분석에 포함된 16개 OECD 국가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SPSS for Window 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행복 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이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측정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 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측정 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 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 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자본이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사회지출이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수준 측정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고등교육지 출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지출이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고 등교육지출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추가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고등교육지출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 연구의 함의 등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행복, 주관적 복지감, 생활만족도, 행복감, 사회자본, 사회지출, HLM, HGLM

학 번: 2007-30059

# 목 차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제기1
제2절. 연구문제 7
제2장. 이론적 배경8
제1절.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
1. 삶의 질 통합 모델8
2. 후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 주관적 복지감10
제2절. 사회자본과 사회지출15
1. 사회자본15
2. 사회지출18
제3절.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2
1. 사회자본 23
2. 사회지출 25
3. 통제변인 27
제3장. 연구방법32
제1절. 연구모형32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33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36
1. 분석자료
2. 분석대상40
제4절. 변인의 정의 및 측정40
제5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47
1. 분석방법47
2. 분석모형

제4장. 결과 및 논의51
제1절. 일반적 특성51
1. 개인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51
2. 국가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53
3. 주요변인 기술통계치55
4. 주요변인 자료특성과 분포특성62
5. 상관관계 ······67
제2절. 연구모형 분석71
1. 기초모형71
2. 중간모형 1: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74
3. 중간모형 2: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81
$4$ . 연구모형: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지본 및 사회지출의 순수 효과 $\cdots \cdots \sim 8$
제5장. 결론 및 논의95
제1절. 연구결과 요약95
제2절. 논의97
제3절. 연구의 함의106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111
참고문헌112
[부록1] 주요변인 국가별 차이 사후검증 결과 ······· 128
[부록2] 개인수주 추정병인 결측치 비용 및 기숙통계치

# 표 목 차

<표1> WVS 회차별 국가별 19-24세 청소년 사례수
<표2> 주관적 복지감 측정40
<표3> 사회자본 측정 41
<표4> 고등교육지출 측정43
<표5> 훈련지출 측정44
<표6>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45
<표7>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46
<표8> 연구문제별 자료 분석방법48
<표9> 개인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51
<표10> 국가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54
<표11> 주관적 복지감 기술통계55
<표12> 사회자본 기술통계58
<표13> 사회지출 기술통계61
<표14> 다중공선성 진단64
<표15> 분포의 정규성 검증65
<표16> 개인수준 국가수준 측정변인 상관관계70
<표17> 행복감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73
<표18>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74
<표19>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77
<표20>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80
<표21> 행복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83
<표22>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85
<표23>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효과88
<표24>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효과92
<부표1> 개인수준 측정변인 결측치 비율 및 기술통계치129

# 그림목차

[그림	1]	삶의	질	통합	모델	. ç
[그림	2]	연구의	모형			 32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 레스는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며 부와 명예 등은 행복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Veenhoven, 2010). 일찍이 부탄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대표 되는 국민총생산 대신 국민총행복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최근 많은 학문분야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다양한 국가들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행복에 관한 대표적 학자들은 이러한 논란이 상당 부분 근거 없다고 반박하면서 학문 주제로써 행복의당위성과 타당성을 강조한다(Helliwell, 2005; Inglehart & Klingemann, 2000; Minkov, 2009; Pacek & Radcliff, 2008; Veenhoven, 2007).

현대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Hayo, 2007). 연구들은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이 행복해 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경제학자 Easterlin(2005)이 발표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국가의 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하면 GDP 증가가 더 이상 개인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행복 설명요인으로 경제적 측면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경제수준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십년간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 가장낮은 행복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정지범, 2011).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구열과 학력우선주의,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은 무엇으로 설명되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행복 측정 개념 중 거시적, 국가적 데이터에 주로 활용하는 개념은 주관적 복지감이다. OECD와 세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을 연구한 미시간대학의 세계 가치조사, 행복연구와 행복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가 주관적복지감을 행복 측정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적복지감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주관적 복지감의 인지적측면인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에 학

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Diener & Diener, 1995; Pacek & Radcliff, 2008; Veenhoven, 2007).

개인은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발달과정을 경험하며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욕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자원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로써 주관적 복지감과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설명하는 삶의 질 통합 모델(Costanza et al., 2007, 2008)은 행복의 설명요인으로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수준에서 사회자본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Bourdieu, 1986; Coleman 1998; Putnam, 1993; Yip et al., 2007). 사회자본이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복지 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자본을 포함시킨 OECD(2001)의 보고서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논의를 계 속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사회자본이 주관적 복지감의 중요한 설명요인 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Bruine, 2009). 사회자본에 관한 초기 연구들이 다양한 유형의 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Putnam, 2000) 최근 연구들은 사회연계의 속성 즉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신뢰, 관계망, 규범이며 관계망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 신뢰, 규범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한다 (Harpham, Grant, Thomas, 2002). Fukuyama(1995) 등은 사회자본이 사회관계의 밑바탕이 되며 주관적 복지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서로 신뢰 하고 규범을 준수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신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준다. 따라서 개인 의 행복은 경제자본 뿐 아니라 사회자본의 견지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Shildrick & Macdonals, 2006). 또한 최근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자본 하위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Stolle, 2001). 즉 신뢰, 관계망, 규범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종민, 2003; 서문 기, 2011). 연구자에 따라 분류는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신뢰, 관계 망, 규범을 사적 측면이 강조된 유형과 공적 측면이 강조된 유형으로 나누며(박종 민·김왕식, 2006; 김승현, 2008) 대체로 대인신뢰(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조직신뢰(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관계망(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 단 관계망), 규범으로 세분화한다.

주관적 복지감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요인은 사 회정책(김윤태, 2010; 정지범, 2011; Helliwelll, 2006; Pacek & Radcliff, 2008)이다.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학자들은 사회정책 이 국민의 삶에 심오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사회정책의 목표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Helliwell, 2004, 2006; Layard, 2005; Pacek & Radcliff, 2008).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지범(2011)은 특히 한국에서 지나친 학구열과 학력위주의 교육정책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사 회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고 안락하게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술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 국가의 사회정책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 용하는 방법은 국가의 사회지출을 검토하는 것이다(최희경, 2003; Adema & Ladaique, 2009). 사회정책을 사회지출로 살펴보는 것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제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복지국가의 복지 노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데 학자들은 동의한다(백승호·안 상훈, 2007).

지난 수 십년간 행복의 원인과 기제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제안점을 도출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행복, 주관적 복지감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자본, 사회정책,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나 특정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Coleman 1998; Helliwelll, 2006; Pacek & Radcliff, 2008; Putnam, 2000; Yip et al., 2007). 따라서 특정한 연령 범위에 있는 대상들에게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생애주기에 따라 고유한 개별적 발달과업과 자원을 가지므로 사회자본, 사회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 혹은 방향성, 세부 항목 또한 달라질 수 있다(Plagnol, 2010). 따라서 연령집단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성 있는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분화된 연령집단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는 사회정책을 측정하는 데 있어 GDP, 탈상 품화, 사회보장지출비율(Chapple, 2010; Ouweneel, 2002), 거버넌스의 질(Kaufman et al., 2003) 등 거시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 청소년, 가족과 같은 대상

별 사회정책, 서비스가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세분화된 정책대상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노력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정책대상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 영역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 영역을 관장하는 사회정책을 가능한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척도,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해야 한다. 최근 OECD가 가족과 가족 내 18세미만 아동에 관한 국가정책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 것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OECD, 2009)1).

셋째, 기존 연구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변인들을 동일한 연구, 연구모형 내에서 검토함에 있어 단순한 회귀분석(Hooghe & Vanhoutte,, 2010; Cramm & Nieboer, 2011)을 통해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수준이 다른독립변수 내의 변량을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로 다른 수준의 변인들을 단일한 수준에서 검토할 경우 집단 변산이 주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아 생태학적오류를 범하거나 결과를 과소, 과대 추정할 위험이 있다. 다층모형은 전통적 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집단 내, 집단 간 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모형들의 오차변량과 공변량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서로 다른 두 수준간의 복잡한 변량을 다루기 위해 다층분석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 중 후기 청소년기에 주목한다. 이는 후기 청소년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등교육정책과 직업훈련정책의 연계 부족, 노동시장으로 의 전이 지연, 청년실업, 노동빈곤충 문제, 고학력 청년무직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은 OECD 국가 최하 수준이다. 후기 청소년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역기능적 심리·사회·정서와 연관되며 개인 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Gilman & Huebner, 2006; Park, 2004; Valois et al., 2001; Zullog et al., 2001). 종종 후기 청소년기 전이 실패가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지만 Worth(2009), Pohl과 Walther(2007)는 청소년기 전이 실패가 선택기회가 제한된 사회와 국가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의 사회구조와 조직 상호작용이 후기 청소년기 전이를 개별화, 탈표준화 시키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일조한

<sup>1)</sup> 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는 가족의 구조, 가족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 아동정책의 산출물에 관한 국가비교데이터가 지표화되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이 주로 어머니의 양육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그리고 18세미만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9-24세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적 개입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Castle, 2000; Cohen & Ainley, 2000; McDonald & Marsh, 2005; Pohl & Walther, 2007). 후기 청소년기 전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등교육으로의 전이와 직업으로의 전이이므로(Barry, 2005; Shildrick & MacDonald, 2006; Verde, 2010; World Bank, 2007) 다양한 사회정책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정책과 훈련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비율은 84%에 달하여 OECD 회원국 중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름하여만민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for All)이란 세계교육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고등교육 보편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박환보·양희준·김기석, 2009). 학자들은 이러한 고등교육 보편화가 마냥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성 부재로 고등교육의 질은 하락하였고 노동시장과도 연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훈련정책 또한 실업, 고용과 삶의 질 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며 후기 청소년기 전이에서 직업전이가 중요한 만큼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Coutts, 2009; Dolan, Peasgood & White, 2007).

종합컨대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삶의 질 통합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사회자본과 국가수준에서 사회지출로 측정된 사회정책이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후기 청소년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수준, 국가수준의 설명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후기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수립함에 있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주관적 복지감의 하위 영역을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과 인지적 측면인 생활만족도로 구분하고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설명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행복감이 비교적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며 현재에 기반한 행복 상태인데 반해 생활만족도는 보다 지속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복 상태임을 고려할 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사회정책 하위변인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사회정책 하위변인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사회정책 하위변인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사회정책 하위변인을 별도로 살펴봄으로써 정서적이고 단기적인 현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과 인지적이고 비교적 장기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행복 증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개인수준에서 측정되는 사회자본의 하위 변인을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으로 세분화하여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사회자본의 세부 변인별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보다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이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되어 분석될 경우 특정한 연령에 필요한 욕구, 지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연구결과가 희석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등교육으로의 전이와 직업으로의 전이로 역할갈등을 겪을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최근 낮은 행복수준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도움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에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후기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사회자본, 사회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후기 청소년기가 고등교육과 직업으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임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회정책 중 특히 고등교육정책과 훈련정책이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등교육정책과 훈련정책이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본 예가 거의 없으나 고등교육여부, 고용, 실업이 개인의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인과성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실업이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훈련정책이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논란과 논의가 있는 만큼 본 연구를통해 고등교육정책이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행복감 증진을 위해 고등교육정책과 훈련정책 중 어떠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파악할수 있을 것이다.

개인, 사회, 국가에 대한 상호불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개인주의의 확대로 상호관계망이 약화되며 사회규범이 혼란해진 현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등교육과 직업으로의 전이로 어려움을 겪는 후기 청소년을 지원할 지는 중요한 사회와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달성함으로써 후기 청소년 행복을 위한 사회복지학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 자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80여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5년마다 주관적 복지감과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항을 조사 해온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이다(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이다. WVS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1,000건 이상의 논문 분석 자료로 활용된 바 있으 며 주관적 복지감을 조사한 연구 중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몇 개 의 데이터 중 하나로 확인된 바 있다(Veenhoven, 2007). WVS는 국가별로 18세 이상 인구 최소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24세 이하 인구가 본 연 구 조사대상 국가 기준 최소 45명에서 최대 173명 포함되어 총 사례수가 1,617명 에 달한다. 분석 자료는 2009년에 최종자료수집이 완료되어 2010년에 자료를 공개 한 WVS 2005로 이는 활용가능한 WVS 자료 중 가장 최근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 서는 WVS 데이터에 포함된 OECD 국가 중 국가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행 연구에서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전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된 남미 국가와 동유럽 국가(Bjørnskov, 2003)를 제외하고 1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국가를 OECD 국가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양한 행복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행복에 미치는 기제 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수준 변인은 OECD 교 육지표(2008), OECD 사회지출(2007),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2012)를 활용하여 2005년도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후기 청소년의 주 관적 복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 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

#### 1. 삶의 질 통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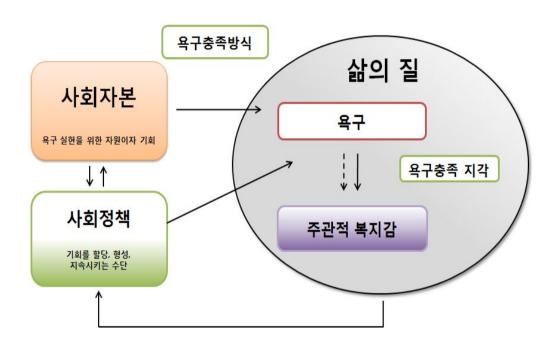
삶의 질 통합 모델(Integrative model of quality of life)은 사회자본, 사회정책, 주관적 복지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다. 삶의 질을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여 주관적 삶의 질의 요소로 주관적복지감, 객관적 삶의 질의 요소로 사회자본, 사회정책을 상정한다(권용현, 2009; Constanza, Fisher, Ali, Beer, Bond, Boumans, Danigels, Dickinson, Elliott, Farley, Gayer, Glenn, Hudspeth, Mahoney, McCahill, McIntosh, Reed, Rizvi, Rizzo, Simpatico & Snapp, 2007; Constanza, Fisher, Ali, Beer, Bond, Boumans, Danigelis, Dickinson, Elliott, & Farley, 2008).

Costanza 등(2007, 2008)은 모델에서 사회자본은 욕구 실현을 위한 자원이자 기회이며 사회정책은 기회를 할당하고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자본, 사회정책이 욕구 실현을 위한 투입물이라면 주관적 복지감은 결과물이다.

삶의 질 통합 모델은 사회자본, 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상호작용 효과 모두를 언급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 자본과 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우선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삶의 질 통합 모델이 사회자본, 사회정책이 개인의 욕구충족을 통해 주관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은 변인간의 관계에서 검토하려 한다.

삶의 질 통합 모델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개인, 지역사회, 국가 등의 다층 구조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Yip, Subramanian, Mitchell, Lee, Wang, & Kawachi, 2007; Kawachi, Kim, Coutts, & Subramanian, 2004).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 즉 주관적 복지감의 향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자본

과 사회정책은 장기적, 지속가능한 삶의 질, 즉 주관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원칙이다. 다음은 삶의 질 통합 모델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 1] 삶의 질 통합 모델

\* 출처: 'Constanza, Fisher, Ali, Beer, Bond, Boumans, Danigels, Dickinson, Elliott, Farley, Gayer, Glenn, Hudspeth, Mahoney, McCahill, McIntosh, Reed, Rizvi, Rizzo, Simpatico & Snapp(2007)과 Costanza, Fisher, Ali, Beer, Bond, Boumans, Danigelis, Dickinson, Elliott, & Farley(2008)'을 재구성

삶의 질 통합 모델은 기존의 심리, 정치, 경제 변인과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이론들이 간과한 사회자본, 사회정책, 주관적 복지감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 2. 후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 주관적 복지감

#### 1) 후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

근대화과정에서 청소년기 개념이 등장한 이래 그 시기는 지속적으로 확대, 연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자의 시각 혹은 각국의 정책 이념과 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Barry, 2005; Fussell, 2006; World Bank, 2007).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기준은 학문적, 법률적, 정책적, 혹은 국제기구별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많은 국가별 통계와 지표들이 국제연합 세계청소년실천프로그램,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의 연령규정에 따라 청소년기를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World Bank, 2007).

청소년기는 독립된 발달단계로 간주되지만, 청소년기 내에는 몇 개의 단계가 존재한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은행은 청소년기의 단계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 내에서 청소년은 독특한 생물학적, 신체적, 심리사회인지적 변화를 경험한다(UNICEF, 2006; World Bank, 2007)2). 본 연구는 특히 후기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는 데 세계은행 2007 세계개발보고서는 후기 청소년을 19세-24세로 규정하고 있어(김경준, 2008; World Bank, 2007) 이 정의를 따르도록 하겠다.

UNICEF(2006)는 후기 청소년기의 특성이 "직업, 고등교육, 부모기로의 전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후기 청소년기 전이의 중요성은 이 시기를 대상으로 교육적, 직업적, 가족적 전이를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Hannan, Raffe & Smyth, 1996; Pohl & Walther, 2007; Raffo & Reeve, 2000; Shildrick & MacDonald, 2006; Walther, 2006; Worth, 200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 전이 유형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받는 분야는 고등교육으로의 전이와 직업으로의 전이이다(Barry, 2005; Shildrick & Macdonalds, 2006).

최근 청소년기 행복,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 사회, 국가의 다원화로 인해 청소년기 특성 또한 보다 다원화 되 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이 더 많은 사회적 배제와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sup>2)</sup>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인구를 표적으로 한 개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매우 중 요한 데, 청소년기를 단일한 발달과정으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단계 내의 차이와 욕구를 간 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청소년을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목표로 하는 개입이나 정책 은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UNICEF, 2006).

주관적 복지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McDonald & Marsh, 2005; Pohl & Walther, 2007).

학자들은 청소년기의 낮은 행복이 그 자체로 청소년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낮은 행복감이 열악한 신체건강, 자살, 우울, 학교중단, 실업, 사회적 배제 등역기능적 신체·심리·사회·정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 통합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Gilman & Hubner, 2006; Park, 2004; Pohl & Walther, 2007; Valois et al., 2001; Zullig et al., 2005).

### 2) 주관적 복지감

#### (1) 주관적 복지감 개념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만큼 행복의 개념도 다양하다. 행복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복지,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복지감,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을 활용한다. 주관적 복지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종종 다양한 개념들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용어들을 행복과 동의어로 보았다(Seligman, 2002). 주관적 복지감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최근 학술 연구에서 선호되는 용어이다(Minkov, 2009). 주관적 복지감은 개인이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된다(Pacek & Radcliff, 2008).

Diener와 Diener(1995), Şimşek(2008), Pacek과 Radcliff(2008) 등은 주관적 복지감을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과 인지적 요소인 생활만족도 (Life satisfaction)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관적 복지감의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은 행복감, 즐거움, 환희 같은 궁정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우울, 슬픔, 질투와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복지감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Diener & Diener, 1995; Şimşek, 2008). Foydyce(1972)는 행복감은 개인의 현재와 과거의 모든 만족,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고려한 상태에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Diener & Diener, 1995에서 재인용).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상당히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 Diener, 1995; Şimşek, 2008).

다음은 주관적 복지감의 인지적 요소로 생활만족도는 외부 준거기준 또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에 따른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평가결과로 정의된다(Diener & Diener, 1995; Şimşek, 2008). 개인이 가진 기준과 현실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주관적 복지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Dutt & Radcliff, 2009).

주관적 복지감의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써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Radharishnan et al, 2002). 일반적으로 정서적 반응은 지속기간이 짧으며 무의식적 동기나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지적 반응은 보다 장기적이고 의식적인 평가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영향을 받는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주관적 복지감의 각기 서로 다른 의미를 반영하므로 이를 별도로 각각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지배적이나 단일 연구 내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드물다(Gundelach & Kreiner, 2004; Helliwell & Putnam, 2004)3).

## (2)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논의

행복, 주관적 복지감이 현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행복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로 하는 학술 연구의 주제로 적절한가와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Helliwell, 2005; Minkov, 2009).

다음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주관적 복지감의 측정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관한 논의, 자기보고식 측정법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척도의 안정성에 관한 논의로 나누 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측정가능성 및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Ratzlaff 등(2000)은 주관적 복지감을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할 경우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아예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다문항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문화에서 주

<sup>3)</sup> 대부분의 행복 연구에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주관적 복지감, 삶의 질, 행복을 혼재하여 사용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 보지 못하였다.

관적 복지감이 가지는 명확한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Inglehart와 Klingemann(2000)은 행복감의 개념이 대부분의 언어에서 적절하게 번역되었으며 다양한 언어 간의 뉘앙스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복지감의 번역으로인한 차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Veenhoven(2007)도 주관적 복지감의 측정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인적, 생태학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행복감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이 초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근거 없다고 반박하였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정법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복잡하고 논란가능성이 있는 '인간 행복'이라는 개념을 연구주제로 채택하는 것과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Helliwell, 2005; Ng, 2008). 행복에 대한 주관적 측정은 미국 심리학자 Diener 등(1995)의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현존하는 행복감 척도가 상당히 믿을 만 하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광범위한 문헌들이 자기보고식 주관적 복지감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행복의 척도가 관련된 유사한 관련 척도들은 물론 삶의 긍정적, 부정적 생활사건 회상(Seidlitz et al., 1997), 친구와 가족구성원의 보고 (Diener, 1984; Costa & McCrae, 1988; Sandvik et al., 1993), 심박수와 혈압과 같은 의료적 측정치(Shedler et al., 1993), 우울, 열악한 식욕과 불면증과 같은 객관적 복지감 사건 발생(Luttmer, 2005)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Foydyce(2005)과 Ng(2008)은 복지감 측정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18년 동안의 행복감 척도 연구를 검토한 결과 행복감 분야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성, 안 정성, 수렴성, 구성·판별타당성이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척도의 안정성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하여 주관적 복지감 측정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그 측정점수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안정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측정점수가 시간대별로 또는 매일 심하게 변화한다면 그 점수들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급변하는 행복의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권석만, 2008). 그러나 개인이 보고하는 주관적 복지감의 평균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자기보고 점수는 약6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Diener, 1994; Diener & Lucas, 200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로 주관적 복지감은 행복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4).

<sup>4)</sup> Veenhoven이 주도하는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는 매년 세계 각국의 주관적 복지감의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한다. 미시간 대학은 '세계가치조사(World

### (3) 주관적 복지감 연구의 제안점

지난 수 십년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행복, 주관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행복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심리학(Ng, 2008; Nettle, 2005), 사회학(Veenhoven, 2000), 정치학(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Ng, 2008; Proctor, Linley & Malby, 2009), 경제학(Easterlin, 2003; Frey & Stutzer, 2002)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주관적 복지감과 관련하여기존 연구의 기여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복지감 연구로써 본 연구가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하였다.

행복을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대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주 관적 복지감'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은 심리학자인 Diener의 역할이 컸다 (Proctor, Linley, & Matby, 2009). 행복에 관한 연구자들은 국가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행복, 주관적 복지감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김윤태, 2010; Diener, Helliwell & Kahneman, 2010; Oishi, Diener & Lucas, 2007) 행복이 국가의 정책의제이자 목표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명한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은 행복을 설명하는데 경제지표의 설명력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경제자본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할수 있게 하는 다른 자본 특히 사회자본의 영향력에 집중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만들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경제학에서 국가의 발전 또는 진보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GDP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선진 국가에서는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강조한다. 여전히 개인 수준의 소득과 행복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Frey & Stutzer, 2002; Hagerty & Veenhoven, 2003; Heady & Wooden, 2004, Kahneman & Krueger, 2006) 국가의 전반적 경제수준이향상 되었다고 국민의 전반적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스털린의 역설과 이에 대한 반론들은 개인 수준의 부와 국가 수준의 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시도로 나타났다(Schyns, 2002). 또 다른 연구들은 실업률,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Frey & Stutzer, 2000).

Value Survey)'를 5년마다 실시하여 개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한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신경 제재단(Newe Economics Foundation)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행복지구지수(Happy Planet Index: HPI)를 측정하여 발표한다(김윤태, 2010).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갤럽월드폴 (Gallup World Poll)을 통해 세계 155개 국가 시민의 행복감을 조사한다(Bjørnskov, 2008; Deaton, 2007).

최근 사회학, 행정학 등에서 행복과 국가제도 특히 사회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가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자 Bentham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이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적절한 사회정책 지출이 행복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Ng, 2008; Layard, 2005; Oishi, Diener & Lucas, 2007). 국내에서도 행복에 대한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정책영역별로 나누어 실증 검토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정지범, 2011).

### 제2절. 사회자본과 사회지출

# 1. 사회자본

### 1) 사회자본 개념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정의는 다양한 접근과 관점을 강조한다. Bourdieu(1986)는 자원의 측면에서 Coleman(1990)은 공유된 가치와 신뢰의 측면에서 Putnam(1993)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망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주로 정의한다(Fine 2001; Morrow, 1999; 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사회학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의 속성으로 심리적 성향이나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실체를 의미한다(심원술·전옥규, 2006).

Bourdieu(1986)은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한다. 그는 사회자본이 상호 면식이 있는 사람들 간에 지속적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Coleman(1990)은 자본을 인적 자본, 물적자본, 사회자본으로 제시한다. 그는 사회자본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 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인적자본, 물적자본으로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Putnam(1993)은 사회자본이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관계망, 규범, 신뢰라고 정의한다. 사회자본을 청소년과 관련한 개념으로 발달시킨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

자인 Coleman(1990)이다.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을 분석함에 있어 미시-중시-거시 관점을 강조하며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는다(Bassani, 2007, 2009).

다양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회자본 요소는 신뢰, 관계망, 규범이므로(Coleman, 1990; Putnam, 1993) 이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신뢰의 일반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의지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바탕을 두어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협력하는 것이다(박종민·배정현, 2011). 신뢰는 사회자본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이며 행동유형인동시에 잠재된 성향이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신뢰는 단일한 영역이 아니라 대인신뢰와 조직신뢰로 구성된다(Hudson, 2006; Rus & Iglic, 2005; Paxton, 1999). 또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대인신뢰와 친구, 친척과 같은 아는 사람, 동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적 대인신뢰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Uslaner, 2002). 신뢰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가?"로 측정된다(Tisenkopfs, Lace, Mierina, 2008).

관계망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말한다. 많은 학자들(Bekkers, Volker, Van der Gaag, & Flap, 2008)은 관계망에 관여하여 협력하고, 공통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 사회관계를 활용하는 능력이 가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관계망 관점은 궁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Tisenkopfs, Lace, Mierina, 2008). 지나친 관계망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계망의 측정은 가족, 친구 등과의 사회관계 빈도 및 지속기간(Lelkes, 2006; Powdthavee, 2008) 혹은 스포츠조직, 자원조직 등에 대한 시민참여(Bjornskov, 2006; Putnam, 2000) 등으로 이루어진다.

규범은 집합적 인구행동에 대해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 발달되어 온 것으로 (Azar, 2004) 보편적 목표를 위해 유익한 행동을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규범은 도시에서도 밤에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Coleman, 1990). 규범은 사회자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연구한 학자로는 Bjornskov(2006)와 Leung 등(2011)이 거의 유일하다. Bjornskov(2006)는 자격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로 규범 수준을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을 구조적 사회자본과 인지적 사회자본으로 나누는 흐름도 있는데 (Uphoff, 2000; Whitley & McKenzie, 2005; Yip et al., 2007) 관계망은 구조적 사회자본, 신뢰와 규범은 인지적 사회자본에 해당한다.

#### 2) 사회자본 연구의 제안점

사회자본은 1990년대 이래로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개인과 집단의 복지감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Bassani, 2003, 2007, 2008, 2009; Coleman, 1987; 1988; Morgan & Sorenson, 1999).

그렇다면 청소년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생산물로써 사회자본 뿐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의 재정적 자원인 재정자본, 개인 혹은 집단의 교육과 기술인 인적자본, 개인 혹은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물적자본 등이 청소년의 복지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데 이는 사회자본을 통해서만 개인이 다른 집단구성원의 재정, 인적, 물적, 심지어 사회자본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Bassani, 2009). 이러한 관점은 사회자본과 복지감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재정자본, 인적자본 등 다른 자본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자들은 또한 사회자원이 사회자본으로 변형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Coleman, 1987; Portes, 1998; Lin, 2001). 사회자본이 집단 내에서 자원에서 자본으로의 복잡한 변형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개인의 복지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Bassani, 2009).

사회자본의 세 번째 관점은 사회자본과 복지감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상관성을 속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이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수 많은 실증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간 상당한 연구들이 사회자본이 청소년 복지감에 부정적, 혹은 비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Ferguson, 2006). 사회자본이 과도할 경우, 즉 지나친 관계망 형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한 집단 내의 지나친 유대로 인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고립될 경우 사회자본이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Ream, 2005).

사회자본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자본의 하위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Stolle, 2001). 따라서 신뢰, 관계망, 규범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종민, 2003;

서문기, 2011; Putnam & Goss, 2002). 연구자에 따라 분류는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신뢰, 관계망, 규범을 사적 측면이 강조된 유형과 공적 측면이 강조된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박종민·김왕식, 2006; 김승현, 2008; Putnam & Goss, 2002) 대체로 대인신뢰(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조직신뢰(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관계망(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적 대인신뢰는 가족, 이웃, 면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사회적 대인신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 조직신뢰는 종교단체, 언론매체, 사회단체 등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는 입법·행정·사법·경찰·군대 등 국가조직에 대한 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예술·문화·여가관련단체 참여수,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정당, 전문가협회, 사회단체 참여수로 정의된다(김승현, 2008; 박종민, 2003; 박종민·김왕식, 2006; 박희봉·이희창, 2005; Putnam & Goss, 2002; Stolle, 2001, 2002). 박종민(2003)은 사회자본의 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을 비공식적, 공식적 영역으로 이분화하여 '좋은 사회자본'에 기여하는 사회자본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2. 사회지출

# 1) 사회지출과 사회정책의 개념

본 연구에서 사회지출은 사회정책을 측정하는 대리변인(proxy)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지출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기준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OECD는 사회지출에 일반정부지출과 사회보험지출뿐 아니라 민간 법정지출 및 자발적 지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OECD(2007, 2009)는 사회지출이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재정적 지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은 제외한다.

사회지출은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 또는 정부의 사회적 노력정도와 그 추이, 목표 달성 정도를 용이하게 분석하는 지표이다. 이 때 사회정책의 목표는 국가 단위를 통한 자원의 공정한 재배분 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회의 적정배 분이다(고경환, 2005). 영국의 Marshall은 사회정책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치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며 사회정책의 목적은 보장, 보건, 복지인데 20세기에 들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복지라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영국의 사회정책론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정책이 영국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박경준, 1997; 박유진, 2008에서 재인용).

OECD는 사회정책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하 SOCX)를 개발하고 사회지출을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의 9개 분야로 분류하였다(OECD, 2007, 2009).

그러나 SOCX의 구분이 광의의 사회복지제도를 거의 포괄하고 있음에도 청소년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후기 청소년에게 교육정책은 훈련정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가차원의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수급자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삶의 질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정책이다(김영민, 2007). UN의 정부기능분류에 의한기능별 지출통계에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의 기존 국가회계자료와 선행연구 자료 또한 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김영민, 2007; 변영우·박은하, 2010; OECD, 2007). OECD는 별도의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이하 EAG)를 통해 국가별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 사회정책 중 고등교육정책, 훈련정책에 주목하고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을 살펴보았다.

고등교육·훈련지출은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안상훈(2007)은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이 현금이전형 프로그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서비스는 고등교육서비스나 훈련서비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사회서비스가 있는 반면,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이 인간을 보호하고 현 상태를 유지

<sup>5)</sup>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독일의 경우 노동정책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서비스,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미국의 경우는 독일보다 영국의 사회정책에 더 가깝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영국의 사회정책보다 좁은 범위를 규정한다(박경준, 1997; 박유진, 2008에서 재인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다. 김상균(2007)은 전자와 같은 목적을 지닌 사회서비스를 인간변화형 사회서비스로 후자와 같은 목적을 지닌 사회서비스를 인간유지형 사회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기 고등교육·훈련지출은 인간변화형 사회서비스에 관한 노력에 해당한다.

OECD(2008)가 규정하는 고등교육지출의 하위영역으로는 고등교육핵심서비스 공교육비 지출, 부가서비스 공교육비 지출 등이 있다. 고등교육핵심서비스 공교육비는 고등교육기관의 총 공교육비에서 연구개발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비용을 말한다. 부가서비스는 교육이라는 주요 임무 외에 교육기관이 부가적으로제공하는 학생복지서비스로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기숙사, 식당, 보건실 서비스가포함된다. 고등교육지출은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간주되고 있다.

훈련지출의 대표적 예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수급자의 고용여건을 향상시키거나 그들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둔 모든 사회지출을 포함 한다. 훈련지출과 관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3가지 항목은 공공고용 알선 및 관리 지출, 직업훈련 지출, 일자리 창출지출이다(김상호, 2004, 채구묵, 2011; 주 OECD 대표부, 2009).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임금·고용보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두 합한 값이다(김상호, 2004, 채구묵, 2011). 이들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예방적인 것으로 실업으로의 이행을 방지한다. 즉, 기존 취업자의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후퇴 시 기업에서 임금, 공공고용 알선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보 호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는 일단 실업자 가 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 서 노동수요에 맞추어 노동공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마찰적,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 이나 구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용보조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 한다(정희정, 2005; 채구묵, 2011).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학교와 학교 이 외의 직업훈련기관들을 이용하여 전생애에 걸쳐서 인적자본을 형성한다(유경준·강 창희, 2010).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복지수급에서 노동으로의 전이에 있어 중요 한 구성요소를 형성한다. Heckman 등(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 인적자본 중 절반은 학교에서 나머지 절반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형성된다. 따 라서 학교교육 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이나 사회에서의 직업훈련 또한 중요하다.

#### 2) 사회정책 측정도구로써 사회지출에 관한 논의

여러 국가의 사회정책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류연규·백승호, 2011; 백승호·안상훈, 2007; 최희경, 2003).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회지출 총량을 활용하는 것이며 그 밖에 사회정책 도입시기와 도입여부, 사회정책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통해서도 사회정책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백승호·안상훈, 2007).

하지만 사회지출 총량만으로 사회정책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전반적 구성과 그에 따른 성격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sping-Anderson, 1990). Esping-Anderson(1990)은 사회복지 제도의 속성을 분석한 연구에 기초하여 복지체제론을 정립하였고, 그의 연구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복지체제 유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백승호·안상훈, 2007에서 재인용).

공공사회지출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제도의 내부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 국가의 사회정책 수준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속성에만 집중하는 것도 국가의 복지관련노력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Castles & Mitchell, 1992; 백승호·안상훈, 2007에서 재인용). 제도적 약속과는 별도로 한 국가의 사회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국가의 정책노력을 규명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최희경, 2003) 제도와 지출을 동시에 포괄하는 새로운방식의 분석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Castle(2002)은 사회정책체계에 대한 검토가 최근의 국가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사회정책체계는 개별 사회복지제도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사회정책체계를 분석한다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절대적 양과 상대적 구성을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hn, 2000; 김영민, 2007에서 재인용).

실제로 각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지의 총량이나 복지체제보다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체계를 현실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사회지출이 다(김영민, 2008; 류연규·백승호, 2011). 사회복지제도를 급여수준이나 포괄범위 등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는 방법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지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전략은 실제로 각 국가가 어떤 사회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어떤 정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는 장점도 있다(최희경, 2003). 또한 사회지출의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고 지적된다. 백승호와 안상훈(2007)은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은 각국의 복지노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여 사회정책을 사회지출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 제3절.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절에서는 사회자본(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과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관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논의에 포함시켰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이며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은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이다. 단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심리변인, 가족변인은 데이터상의 한계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변인또한 국가수가 16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지적된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를 변인으로 우선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 1. 사회자본

### 1) 신뢰

### (1) 대인신뢰: 사적 대인신뢰와 사회적 대인신뢰

Leung 등(2011)은 사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Yip 등(2007)은 중국 상동지방의 농촌에서 사회적 대인신뢰가 개인 및 마을 수준에서 주관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층분석틀을 22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한 Poortinga(2006)는 사적, 사회적 대인신뢰가 스스로 지각한 건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 (2) 조직신뢰: 사회 조직신뢰와 정부 조직신뢰

Leung 등(2011)의 연구에서 경찰 등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와 의료보호체계, 은행, 사업가 등 사회 조직에 관한 조직신뢰는 모두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Hudson(2006) 또한 유럽연합 국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법제도, 중앙정부, UN 등에 대한 조직신뢰와 복지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대인신뢰와 조직신뢰의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Rus와 Iglic(2005)은 연구결과가 국가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Slovenia의 사업가들은 조직신뢰에 더 의존하는 반면 Bosnia의 사업가들은 대인신뢰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캐나다의 노동현장에 대한 최근 연구(Helliwell and Huang, 2005)에서 조직신뢰, 특히 노동현장에 대한 사회 조직신뢰가 주관적 복지감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senkopfs(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등은 현대 사회에서 조직신뢰가 대인신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청소년 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 2) 관계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공식적 집단 관계망

관계망과 행복 간에는 혼재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 같은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행복과 정적 상관성을 갖는다고 한 연구가 있는 반면 (Groot et al., 2007; Helliwell & Putnam, 2004; Lelkes 2006; Lueng et al., 2011; Powdthavee 2008; Poortinga, 2006) 관계망이 행복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도 있다(Dolan et al., 2008; Kennelly, O'Shea & Garvey, 2003). 중국 상동지방의 농촌에서 사회자본이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ip 등(2007) 또한 관계망은 복지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Bjornskov(2006)은 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복지감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와 인지적 측면은 물론 관계망의 하위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Uphoff, 2000; Whitley & McKenzie, 2005; Yip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 3) 규범

규범은 사회자본의 영역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실증적 접근을 실시하기 쉽지 않다(Leung, Kier, Fung & Sproule, 2011). 규범과 행복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Bjornskov(2006)와 Leung 등(2011)이 거의 유일하다. 사회규범의 프록시로 Bjornskov(2006)은 뇌물수수 혹은 탈세와 같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규범과행복감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Bjornskov(2006) 연구와는 다른 척도로 규범을 측정한 Leung 등(2011)은 규범이 행복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가정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 더 행복하게 느꼈다. 그러나 직관에 반대되게도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 덜 행복하다고느낀 연구결과도 있었다. Leung 등(2011)은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 과정에서 발생한다중공선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사회지출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이 주관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 1) 고등교육지출

다양한 국가에서 교육지출은 교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측정하 는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된다. 교육에 대한 높은 지출은 더 나은 학교 기반시설을 설립하는데 공헌할 수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Sievert, 2008). 학교설비와 도서에 관한 더 많은 투자는 학생들이 더 편한 환경에 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Veenhoven, 2007). Rothstein(2010)은 공교육은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 들이 높은 욕구를 가진 재화이며 보편적 체계에 의해 포괄되기 때문에 사교육지출 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지출을 확대하여 학교를 중 단한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획득하고 고등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이 보고된 바 있다(Cunningham, 2008). 교육지출은 첫째, 양질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지식 과 기술을 획득하여 스스로 성공적인 학교-직업 전이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증 가시킴으로써, 둘째,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이 또래와 학교 내의 성인과 형성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Cunningham, 2008). 그러나 세 계 132개국 6만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세계조사를 분석한 Oishi 등(Oishhi, Schimmack & Diener, 2012)는 정부지출이 오히려 주관적 복지감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고 있다. 정부지출이 큰 나라일수록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 지며 정부지출과 주관적 복지감 간의 관련성은 지출규모 그 자체보다 교육체계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부의 공평한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 교육지출과 고등교육지출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환보 등(2009)은 무조건적 고등교육지출 확대로 초래된 고등교육 보편화가 의미 없는 학위공장이나 청소년수용소를 양산하였으며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노동시 장과의 분리를 초래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 2) 훈련지출

서구 노동경제학계에서는 학교 졸업 후의 직업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Leuven & Oosterbeek, 2008). 서구와 비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훈련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 한 상태는 아니며 몇몇 소수 연구들 또한 직접훈련의 인과효과를 정확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유경준·강창희, 2009). 적극적 노동시장과 정부의 훈련 프로그램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행복, 주관적 복지감, 삶의 질과 같은 주관적 개념보다 소득, 재취업기회,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과 같은 노동시장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 어 온 경향이 있어 왔다(유경준·강창희, 2010; 이익섭·이병화·김성연, 2009; 황선자· 이철, 2008; Coutts, 200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직접 살펴보는 대신 노동시장 지위와 건강에 관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은 실업과 고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예측하고 있다(Coutts,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입효과에 직접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고용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둔다(Benach & Muntaner, 2007). Layard(2004)는 행복과 노동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인 이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고통스러움은 자기존중감 상실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실직의 고통이 소득의 절반을 상실했을 때와 동일한 정도라고 하였다.

그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부족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영국 신경제재단은 노동, 건강, 복지감이 복지수급에서 노동으로의 전달에 기본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배제, 소득손실, 건강불평등 등을 감소시키면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시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Marks & Shah, 2004). 학자들(Marmot, 2003; Sennett, 2003)은 정부 개입을 통한사회적 목표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에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직 사회지출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Dolan, Peasgood, White, 2008).

## 3. 통제변인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이며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은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이다6).

### 1)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개인과 가족의 직업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등이 있다.

#### ① 성별

많은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복지감 수준을 나타 낸다고 보고하고 있다(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Blanchflower와 Oswald(2004)의 종단 연구와 27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갤럽세계조사를 분석 한 Helliwell(200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Alesina 등(2004)과 몇 몇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Louis & Zhao, 2002). 이것 은 서로 다른 연구에서 서로 다른 통제변인을 활용함으로써 성별의 주관적 복지 감에 대한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Oswald & Powdthavee, 2008, van den Berg & Ferrer-i-Carbonell, forthcoming). 그러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반면(강영하, 2008) 생활만족 도는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혜원·홍미애, 2007; Goldbeck, Schmitz, Besier, Herschbach, & Henrich, 2007).

<sup>6)</sup>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지만 국가변인수의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지적된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를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 ② 연령

연구들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복지감이 감소한다고 보고한다 (Blanchflower & Oswald, 2004; Ferrer-i-Carbonell, & Gowdy, 2007). 연령과 주관적 복지감간의 상관성은 U 자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Blanchflower & Oswald, 2008; Clark, Frijters & Shields, 2007; Frijter & Beatton, 2008)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가 시작해서 지속되는 동안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Chang et al., 2003; Suldo & Huebner, 2004, Ullman & Tatar, 2001) 32세에서 50세에서 최하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Easterlin (2006)은 연령과 주관적 복지감의 관련성은 대부분 소득, 건강, 고용 등연령과 관련한 생활조건의 차이에 기이한 것이므로 이들을 통제할 경우 연령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교육수준

일부 연구들은 높은 교육수준이 높은 주관적 복지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Blanchflower & Oswald, 2004), 또 다른 연구들은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tutzer, 2004). 교육수준은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ahey & Smyth, 2004; Ferrer-i-Carbonell, 2005). Flouri (2004)는 교육수준과 행복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Clark, 2003). 교육수준은 동기, 지능, 가족배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통제변인을 활용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Dolan, Peasgood, White, 2008).

#### ④ 본인직업유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극심하게 낮은 복지감 수준을 보인다 (Clark and Oswald, 1994, Blanchflower, 1996). Layard(2004), Winkelmann과 Winkelmann(1998)은 실직의 고통은 소득상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학교를 떠나 바로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이 낮은 지각된 역량, 낮은 생활만족도, 우울감의 증가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Proctor, Linley, & Maltby, 2009). 횡단관계에서의 일부 학자들은 실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고용되지 않을 경향성이 크다고 주장

한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실업상태였던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된 경우 복지감이 상당히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⑤ 가장직업유무

위에서 살펴본 본인직업유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부모 직업유무 또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다(Clark et al. 2008; Frijters et al. 2008). 김연희·김선숙(2008)은 부모의 물적자원이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였다.

#### ⑥ 주관적 사회계층

Lyubomirsky, Sheldon과 Schkade(2005)는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사회계층을 지적하였다. 사회비교이론은 행복감이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Easterlin, 2003). 즉,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상대적 계층이 동일하면 행복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Inglehart et al., 2008). 따라서 주관적 사회계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2)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수로는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가 포함된다.

#### ① 1인당 GDP

행복감과 거시경제적 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Chapple, 2010). Easterlin(1974)은 행복감과 GDP 성장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Bjørnskov, Dreher와 Fischer(2008) 또한 GDP, 혹은 단기·장기GDP 성장,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2000년 세계 데이터 샘플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반대로 Ovaska와 Takashima(2006)는 68개국 횡단 데이터에서 국가의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상승함을 발견하였다. 국가의 소득과평균 행복감 간에 단순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정적인 관련성을 도출한 연구결과(Frey and Stutzer, 2002; Easterlin, 2005; Inglehart, 2008)도 있다.

#### ② 청년실업률

실업률은 문헌에서 상당한 경험적 관심을 끈 변수이다. 개인수준의 변인 중 개인의 실업은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우석, 2011; Di Tella et al., 2001; Wolfers, 2003). Di Tella 등(2001)은 이것이한 국가의 실업률이 높을 경우 개인의 두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Blanchflower(2007)은 심지어 직업유무를 통제한 이후에도 국가의 실업률이 개인의 복지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Alesina 등(2004)은 유럽의 경우 실업률이 주관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Bell과 Blanchflower(2010, 2011)의 최근 연구에서도 실업률의 증가가 개인의 실업 여부와관계없이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의 경우 그 효과는 성인보다작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와 생활하고 있고 이것이 실업의 영향을 완화하기 때문이다(Card & Lemieux, 2000, Chiuri & Del Boca 2008). 실업률과 소득불평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소득불평등도를 통제함으로써 실업률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Dolan 등(Dolan, Peasgood, White, 2008)은 설명한다.

#### ③ 소득불평등(GINI)

소득불평등이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WVS 데이터를 활용한 Fahey와 Smyth(2004)는 소득불평등이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하였으며 Hagerty(2000) 또한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복지감의 부정적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Haller와 Hadler(2006)는 소득불평등이 생활만족도를 높인다고하였다. 이런 대조적인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국가 데이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Bjørnskov, 2003). 특히 상대적으로 행복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불공평한 소득분포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탈사회주의 국가가 공평한 소득 분포를 갖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결과 또한 혼재된 결과를 나타낸다. 유로바로미터를 분석한 O'Connell(2004)은 소득불평등도와 주관적 복지감 간에 정적 상관을 발견한 반면, Alesina 등(2004)은 종단자료에 더 많은 통제변인을 투입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영국의 경우에서 Clark(2003)는 전일고용 노동, 40세 미만, 평균소득 이하, 최근 3년간 높은 소득 증가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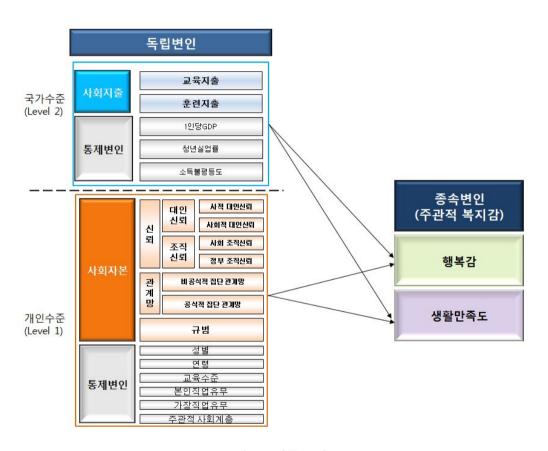
다.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불평등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Clark(2003)와 Alesina 등(2004)은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복지 감을 증가시킨 것과 관련하여 이들이 불평등을 기회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소득불평등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유동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즉 유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득불평등이 기회로 간주되는 반면 유동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유럽과 독일 같은 곳, 불평등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Dolan, Peasgood, White, 2008).

# 제3장.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후기 청소년의 주 관적 복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개인수준 측정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각각의 연구문제를 통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적 대인신뢰와 관련하여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Leung 등(2011)과 Yip 등(200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1-1-1] 사적 대인신뢰가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사적 대인신뢰가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정하였다. 사회적 대인신뢰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Yip 등(2007)과 Poortinga(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1-2] 사회적 대인신뢰가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2] 사회 조직신뢰가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sup>7)</sup> 연구가설은 가능한 행복감, 생활만족도를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결과를 구분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행복감, 생활만족도를 구분한 연구가 없는 경우 주관적 복지감, 삶의 질 등 유사개념을 종속변인으로 검토한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 사회자본 하위 영역의 경우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인 관계로 행복과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가 많지 않아 행복감, 생활만족도별 구분이 쉽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것이다로 가정하였다. 캐나다의 노동현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 조직신뢰가 주관 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Helliwell & Huang, 2005)를 바탕으로 [가설 1-1-3] 사회 조직신뢰가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3] 사회 조직신뢰가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정부 조직신뢰가 행복감과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Leung 등(2011)과 Hudson(2006)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1-4] 정부 조직신 뢰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5] 정부 조직신뢰가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정하였다.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행복과 정적 상 관성을 갖는다는 연구(Groot et al., 2007; Helliwell & Putnam, 2004; Lelkes, 2006; Leung et al., 2011)를 바탕으로 [가설 1-1-5]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행복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5]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정하였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복지 감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Bjornskov(2006)를 바탕으로 [가설 1-1-6] 공 식적 집단 관계망이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6] 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정하였다. 규범이 행복과 관 계가 있다는 Leung 등(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1-7] 규범이 행복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7] 규범이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로 가정하였다.

"[연구문제 2]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 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국가수준측정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각각의 연구문제를 통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1]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지출 (Cunningham, 2008; Sievert, 2008; Veenhoven, 2007)과 훈련지출이 주관적 복지감

에 궁정적 영향을 미칠 것(Coutts, 2009)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행복감, 생활 만족도에 대한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의 영향이 궁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따라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의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관적 복지감을 행복감, 생활만족도로 나누어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사례가 없어 부득이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이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설이 수립되었다. [가설 2-1-1] 고등교육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궁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궁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1] 고등교육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궁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2]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궁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사회지출이 오히려 주관적 복지감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Oishi, Schimmack & Diener, 2012)가 있음을 볼 때,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의 영향이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1. 분석자료

## 1) 개인수준 분석자료

본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 자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80여 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5년마다 주관적 복지감과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항을 조사해온 미국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이다8) (http://www.worldvaluessurvey.org, 2012).

WVS는 전세계 80 여 개국의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 회차당 국가별 조사대상인원은 최소 1,000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19세이상 24세이하후기 청소년은 가장 최근 자료인 WVS 2005를 기준으로 한 국가당 최소 45명에서최대 173명이다. WVS는 각 국가별로 완전확률표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확률적으로 선택된 소규모 군집 내에서 할당표집을 실시한다. 1:1 대면면접을 통한 설문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화, 메일, 인터넷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며 대상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자료 수집 및 배포를 완료한 WVS 2005이다. 사실상 WVS 데이터는 5년 간격으로 측정되는 시계열 데이터인 만큼 조사목적과 관심변인에 따라 국가 인구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단분석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사전에 회차별 국가별 조사 참가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회차별로 조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있었으며 조사여부 패턴 또한 불규칙함을 파악하였다. 3회차 이상을 종단분석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능한 국가는 OECD 국가 중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5개국에 불과하였다. 연구자는 위 5개 국가만으로 OECD 국가를 대표하는 표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sup>8)</sup> 행복측정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는 조사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외에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이 있다(Bjørnskov, 2008; Deaton, 2007).

<표1> WVS 회차별 국가별 19-24세 청소년 사례수

			회차			
7 H	1회차	2회차	외사 3회차	4회차	5회차	
구분	(1981-	(1989-	(1994-	(1999-	(2005-	
	1984)	1993)	1999)	2004)	2007)	전체
	161	0	223	0	101	485
캐나다	0	0	0	193	176	369
핀란드	0	0	142	0	100	242
프랑스	0	0	0	0	106	106
독일	0	0	159	0	137	296
이탈리아	0	0	0	0	91	91
일본	0	113	112	113	69	407
한국	0	208	179	163	164	714
네덜란드	0	0	0	0	103	103
뉴질랜드	0	0	105	0	59	164
노르웨이	0	0	116	0	91	207
스페인	0	215	163	140	127	645
스웨덴	0	0	122	105	72	299
스위스	0	115	107	0	45	267
영국	0	0	89	0	103	192
미국	0	0	100	162	87	349
전체	161	651	1,617	876	1,631	4,936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개인수준 측정변인인 행복감, 생활만족도, 사회자본의 회차별 조사여부와 세부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복감, 생활만족도는 3회차 모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분석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사회자본은 각 회차별로 조사한 하위항목이 서로 달라 3회차 모두에 포함되는 공통 설문항목을 찾기 어려웠다. 3회차 모두에 포함된 사회자본 관련 설문은 대인신뢰 중 가족과 이웃에 대한신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한된 국가만으로 3회차 이상을 종단분석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양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관계 망, 규범 중 일부만이 파악되어 사회자본이 가지는 의미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WVS 데이터상의 한계로 현재까지 회차에서는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자본, 사회지출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단, 점차로 WVS 조사에 참여하는 국가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볼때, 6차년도가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3회차 이상 조사에 참여한 국가수가 보다 늘어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종단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WVS 2005의 조사시기는 2005년-2007년이며 2009년에 최종자료수집 및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어 2010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 중 OECD 국가에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OECD 국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행연구들이 국가의 부의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주관적복지감에 미치는 요인이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현재 OECD 34개국》(http://www.oecd.org, 2012. 12. 1. 인용) 중 WVS 2005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13개국을 제외한 국가는 21개국이다. 이 중 터키, 슬로베니아, 칠레는 분야별 사회지출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와 현저히 다른 경제지표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경제선진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되는 남미국가인 멕시코와 동유럽국가인 폴란드(Bjørnskov, 2003)를 제외하고 최종 OECD 16개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sup>9) 2012</sup>년 12월 현재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으로 34개국이다.

## 2) 국가수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국가수준 분석자료는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하 SOCX)와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이하 EAG)이다.

OECD는 사회정책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사회지출10)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바 있다. SOCX는 이러한 사회지출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영역의 9개 사회정책 분야로 분류하였다(OECD, 2007, 2009). SOCX는 지출 항목을 세부 지출 수준인 사회지출 프로그램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OECD 회원국 간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출을 세항별로 기록하여 개개 급여 개혁의 분석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출을 분류하는 것이 수월하고 자료기록 시의 비일관성이 감소된다(Adema, 2006).

그러나 OECD의 SOCX의 구분이 광의의 사회복지제도를 거의 포괄하고 있음에도 청소년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고등교육지출에 관한 사항은 OECD 교육지표를 활용하였다(OECD, 2008).

이 외에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으로 1인당 GDP, 청년실업률은 OECD 데이터 베이스(http://www.oecd.org, 2012)를 소득불평등도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 2012)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sup>10)</sup> OECD의 SOCX 개념은 사회를 의미하는 SOC와 지출을 의미하는 Expenditure의 X를 조합한 합성어로 사회지출을 의미하는 데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지출로 의미되고 번역된다(윤영섭, 2012; 정혜진, 2012; 최지혜, 2012).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지출로 SOCX에 포함되는 훈련지출 뿐 아니라 고등교육지출을 활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보다는 사회지출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할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OECD의 SOCX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항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김영민, 2007; 변영우·박은하, 2010; 배득종·황성원·권오성·이동완·한상일, 2008).

# 2. 분석대상

개인수준 분석대상은 19-24세 후기청소년이며 국가수준 분석대상은 16개 OECD 국가이다. 분석에 포함된 후기 청소년수는 총 1,617명이며 16개 OECD 국가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 제4절. 변인의 정의 및 측정

본 절에서는 종속변인인 주관적 복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 독립변인인 사회자본(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과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개인수준측정통제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의 정의 및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주관적 복지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복지감을 '개인이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를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 인지적 측면인 생 활만족도로 나누었다. 주관적 복지감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2> 주관적 복지감 측정

질문	응답	비고	출처
행복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l> <li>매우 행복하다.</li> <li>행복한 편이다.</li> <li>행복하지 않은 편이다.</li> <li>전혀 행복하지 않다.</li> </ol>	역으로 재부호화	WVS
생활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① 대단히 불만족한다.		2005
요즈음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⑩ 매우 만족한다.	-	

# 2.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대인신뢰(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 뢰), 조직신뢰(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관계망(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 적 집단관계망), 규범'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3> 사회자본 측정

구	분	질문	응답	비고	출처
	대인	사적 대인신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사회적 대인신뢰	① 완전 선택다 ② 약간 설턴다 ③ 별로 설치지 않는다 ④ 전혀 설치지 않는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3)으로 나눔11)	
신 뢰 -	인신뢰	거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 른 나라 사람)	① 완전히 신로한다 ② 약간 신로한다 ③ 별로 신로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로하지 않는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3)으로 나눔12)	
뇌	조직신뢰	사회 조직신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교회, 신문, 텔레비전, 노동조합, 대기 업,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인 권·자선단체,	① 완성히 신로한다 ② 약간 신로한다 ③ 별로 신로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로하지 않는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8)로 나눔 <sup>13)</sup>	
신 뢰		정부 조직신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군대, 경찰, 사법부, 행정부, 정당, 의회)	①완성이 신로한다 ②약간 신로한다 ③ 별로 신로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로하지 않는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6)으로 나눔 <sup>14</sup> )	WVS 2005
관겨	ᆌ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귀하께서 회원으로 계신 단체가 있으 시면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종교나 교회단체, 스포츠・레크레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적 활동) 공식적 집단 관계망	① 화완님 ① 소극적 화원 ② 작극적 화원	②를 ①로 재부호화한 후 회원으로 있는 단체수를 합산	
		귀하께서 회원으로 계신 단체가 있으시면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전문가협회, 인권 혹은 자선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① 회완·님 ① 소극적 회원 ② 작극적 회원	②를 ①로 재부호화한 후 회원으로 있는 단체수를 합산	
규'	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 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①전혀장생활수없다  ①항상장생된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4)로 나눔 <sup>15)</sup>	

## 3. 사회지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사회지출을 '19세-24세 청소년이 공공으로부터 수 령하는 고등교육·훈련에 관한 급여와 재정적 지원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지출은 고등교육지출과 훈련지출로 측정하였다.

### 1) 고등교육지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고등교육지출을 '19세-24세 청소년이 공공으로부터 수령하는 고등교육에 관한 급여와 재정적 지원으로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고등교육지출은 공교육에 사용되는 정부지출 중 고등교육핵심서비스 공교육비 지출,부가서비스 공교육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GDP 대비 고등

<sup>11) 3</sup>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 489로 내적일관성 판단기준인 0.6보다 작았으며 삭제시 현저히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문항이 없어 문항의 내적일관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인신뢰에 대한 6개 문항을 모두 포함시켜 요인 분석한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유의확률이 .000이며 Kaiser-Meyer-Olkin 측도 역시 .728로 기준치 .50보다높게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이학식·임지훈, 2010). 분석결과 두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결과요인 1에는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요인2에는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높게 적재되어 선행연구에서 대인신뢰의하위요소로 지적한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개념과 정확히 부합하였다(김승현, 2008; 박종민·김왕식, 2006; 박통희, 2010). 이에 내적일관성 판단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사적 대인신뢰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sup>12) 3</sup>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802이며 삭제시 현저히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문항이 없어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sup>13) 8</sup>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734이며 삭제시 현저히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문항이 없어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sup>14) 6</sup>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823이며 삭제시 현저히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문항이 없어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sup>15) 4</sup>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733이며 삭제시 현저히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문항이 없어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규범에 관한 WVS 지문 11개 항목 중 4 항목만을 사용한 것은 해당 4개 문항을 규범으로 간주하고 선행연구 분석한 Bjornscov(2006)의 예를 준용한 것이다.

교육핵심서비스 공교육비 비율', 'GDP 대비 부가서비스 공교육비 비율'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16).

#### <표4> 고등교육지출 측정

—· —S—    E	10	
내용	비고	출처
GDP 대비 고등교육핵심서비스 공교육비 지출 비율		
GDP에서 교육핵심서비스(교육기관의 총 공교육비에서 연구개발비와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CDD tilti	
GDP 대비 부가서비스 공교육비 지출 비율	- GDP 대비 고등교육핵심서비스	
GDP에서 부가서비스(주요 임무 외에 교육기관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초등, 중등, 중등후 비고등교육의 경우 급식, 보건서비스,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포함되고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기숙사, 식당, 보건실이 포함. 학생과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공교육비 지출비율과 GDP 대비 부가서비스 공교육비 지출비율을 합산함	OECD 교육지표 (2008)

### 2) 훈련지출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후기 청소년 훈련지출을 '19세-24세 청소년이 공공으로부터 수령하는 훈련에 관한 급여와 재정적 지원으로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들 수있으며 '공공고용 알선 및 관리 지출', '직업훈련 지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GDP 대비 공공고용 알선 및 관리 지출 비율',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 'GDP 대비 일자리 창출 지출 비율'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sup>16)</sup> OECD 교육지표(2008)의 교육단계분류는 국제표준교육분류 개정안(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97)에 기초하고 있다. ISCED는 교육통계의 국제비교를 위한 수단이며 6개의 교육단계로 구분된다. 그 중 19-24세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교육 단계는 후기중등교육과 중등후 비공등교육, A유형 고등교육, B유형 고등교육이다. 후기중 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각종학교(고교 과정), 특수학교 고교 과정, 고등기술학교에 해당한다. 중등후 비고등교육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학제이며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육 이전의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유형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대학(교), 일반대학원/대학원대학 석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해당한다. B유형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해당한다.

#### <표5> 훈련지출 측정

내용	비고	출처
GDP 대비 공공고용 알선 및 관리 지출 비율		
GDP에서 공공고용 알선 및 관리(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탐색 과정 및 집중 상담 제공 비용, 직업탐색 및 고용알선 부대 비용, 노동시장 서비스기관의 행정 비용, 고용알선, 상담, 직업지도 등을 위한 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GDP 대비 공공고용알선 및 관리 지출비율,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율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GDP에서 직업훈련 (조직내 직업훈련, 작업장내 직업훈련, 통합적 직업훈련, 도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 관한 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됩판단 시물 비율, GDP 대비 일자리 창출 지출 비율을 합산함	OECD SOCX (2007)
GDP 대비 일자리 창출 지출 비율	전연령 비용으로	
GDP에서 일자리 창출 (직접 고용창출(공공 또는 민간 조직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창출하는 임시직 또는 정규직 관련 비용)과 고용보조금(구직활동과 고용유지활동에 관한 보조금 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천단당 위상으로 측정함17)	

# 4. 통제변인

다음에서 본 연구의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과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살펴보겠다.

# 1)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 무, 주관적 사회계층이 있다<sup>18</sup>).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sup>17)</sup>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OECD SOCX(2009)는 연령별 지출 구분이 불가능하여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출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sup>18)</sup>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별다른 정의가 필요하지 않아 변수의 정의는 생략하였다.

# <표6>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

변인	질문	응답	비고	출처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②를 ①으로 재부호화 (더미)	
 연령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전문대 ⑧ 대학교	-	-
본인직업 유무	귀하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① 정식직원으로 근무 ② 임시직원으로 근무(주 당 30시간 이내) ③ 고용주 ④ 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실업 ⑧ 기타	①23을 ①로 재부호화, ④5678을 ⑥으로 재부호화 (더미)	WVS 2005
가장직업 유무	귀 댁의 주 수입원이신 분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를 <u>①으로</u> 재부호화 (더미)	-
주관적 사회계층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류 ② 중상위 ③ 중하류 ④ 근로계층 ⑤ 하류	역으로 재부호화	

# 2)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에는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가 있다<sup>19</sup>.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7**>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변인	내용	비고	출처
1인당 GDP <sup>20)</sup>	시가와 구매력을 고려하여 US\$로 조정한 1인당 국내총생산	해당값을 자연Log 변환하여 활용	OECD StatExtracts (2012)
청년실업률	20-24세 연령집단에서 노동력에서 실업상태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	OECD StatExtracts (2012)
소득불평등도	GINI 계수(세후) 범위: 0(완전 평등)~ 1(완전 불평등)	해당값을 자연Log 변환하여 활용	OECD StatExtracts (2012)
	•	•	•

<sup>19)</sup>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200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up>20)</sup> 원문의 표현은 GDP per capita, USD, current prices and PPPs이다.

# 제5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원분산분석,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 1)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연구대상 개인·국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자료로 개인수준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 국가수준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주요변인자료로 주관적 복지감, 사회자본, 사회지출 수준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측정 측정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for Window 18.0 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과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위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이하 HGLM) 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회귀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들 간의 집단 내 상관을 고려하여 표준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료 내에 위계적 구조가 존재할 경우, 즉 개인이 집단 내에 있으면서 많은 집단들이 함께 표집 된 경우에는 개인자료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 사이에는 더 강한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도 여러 국가의 개인 자료가 연결된 것으로써 주관적 복지감에 있어서도 동일한 국가요인의 영향을 받는 국가 내 개인들이 다른 국가의 개인들보다 더 강한 유사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

형의 다층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집단 수는 16개국이다. 다층모형은 각 집단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집 되었다고 전제하는데 본 연구의 집단은 OECD 16개국으로 그 분포가 다양한 복지국가군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고루 포괄하고 있어 무작위 표집으로 가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행복감과 같이 4점 리커트 서열척도로 측정된 경우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위계적 선형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선형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오차는 과소 추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연계 함수을 이용한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추정을 사용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생활만족도는 10점 리커트 척도로 원칙적으로는 서열척도이나 응답의 범위가 1-10으로 넓고 사전검토결과 선형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고 있어 연속변수로 간주해도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chical Linear Model; 이하H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8> 연구문제별 자료 분석방법

내용	분석방법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 지감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변 량	HGLM/HLM 기초모형 분석 ●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연구문제 1]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 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HGLM/HLM 중간모형 분석 ●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연구문제 2] ●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 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	HGLM/HLM 중간모형 분석  ●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ul> <li>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 지감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순수효과</li> </ul>	HGLM/HLM 연구모형 분석  ● 절편 모형  (Intercepts as Outcome Model)

우선, 기초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의 최소 모형에 해당하는 무선효과 일 원변량분석모형으로 종속변인인 주관적 복지감의 전체 변량을 개인수준과 국가수 준 변량으로 분할하고 집단 내 상관계수<sup>21</sup>)(ICC)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를 통해 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설명 변량을 산출하기 위해 집단 내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중간모형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모형에서는 우선 개인수준 변인을 투입하고 국가수준 변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인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에 절편 및 기울기 계수가 국가에 따라 무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형에 해당하며, 기초모형과의 변량 추정치 비교를 통해개인수준 변인의 설명 변량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국가수준에 해당하는 변인만을투입한 후 기초모형과의 변량 추정치 비교를 통해 국가수준 변인의 설명 변량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 변인과 국가수준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최종 연구모형으로 절편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수준 변인과 국가 수준 변인의 순수 변량을 산출하였다.

<sup>21)</sup> 우선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위계선형모형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을 산출해야 한다. 만약 집단내 상관계수가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는 실상 통상최소자승법(OLS)를 통해서도 타당한 결과(BLUP: best linear unbiased prediction)를 산출할 수 있다.

# 2. 분석모형

# 1) 기초모형(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모형)

먼저 기초모형은 집단 내 모형과 집단 간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인인 행복감, 생활만족도와 집단 구분만 있는 최소 모형에 해당한다.

# 2) 중간모형(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

다음으로 중간모형은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수준 변인인 사회자본과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설명 변량을 산출하는 모형과 국가수준 변인인 사회지출과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설명 변량을 산출하는 모형에 해당한다. 모형의 간결성과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변인들의 회귀계수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 3) 연구모형(절편 모형)

연구모형은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내 모형에 개인수준 변인인 사회자본과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국가 간 모형에는 국가수준 변인인 사회지출과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이다.

# 제4장. 결과 및 논의

# 제1절. 일반적 특성

# 1. 개인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개인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_	
구분	빈	도(%)
성별		
여성	850	(52.6)
남성	767	(47.4)
합계	1617	(100.0)
연령		
19세	254	(15.7)
20세	274	(16.9)
21세	258	(16.0)
22세	278	(17.2)
23세	302	(18.7)
24세	251	(15.5)
합계	1617	(100.0)
평균(표준편차)	21.53	(1.68)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24	(1.5)
초등학교 졸업	94	(5.8)
중학교 중퇴	110	(6.8)
중학교 졸업	304	(18.9)
고등학교 중퇴	134	(8.3)
고등학교 졸업	343	(21.3)
전문대	263	(16.4)
대학교	336	(20.9)
합계	1608	(100.0)
본인직업유무		
없음	843	(54.4)
있음	707	(45.6)
합계	1550	(100.0)

	빈	도(%)
가장직업유무		
없음	103	(12.6)
있음	714	(87.4)
합계	817	(100.0)
주관적 사회계층		
하류	61	(5.0)
근로계층	313	(25.6)
중하류	507	(41.5)
중상류	332	(27.1)
상류	10	(.8)
합계	1223	(100.0)
국가		
호주	101	(6.2)
캐나다	173	(10.7)
핀란드	100	(6.2)
프랑스	106	(6.6)
독일	135	(8.3)
이탈리아	91	(5.6)
일본	65	(4.0)
한국	164	(10.1)
네덜란드	103	(6.4)
뉴질랜드	57	(3.5)
노르웨이	91	(5.6)
스페인	126	(7.8)
스웨덴	71	(4.4)
스위스	45	(2.8)
영국	102	(6.3)
미국	87	(5.4)
합계	1617	(100.0)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52.6%, 남성은 47.4%이다. 19-24세 후기 청소년이 조사대상이며 평균 연령은 21.53세이다. 최종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1.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20.9%, 전문대 16.4%, 중학교 졸업 18.9% 순이다. 청소년 본인의 45.6%가 직업이 있었으며 가장의 경우 87.4%가 직업이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스스로를 중하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상류 27.1%, 근로계층 25.6% 순이었다. 국가별 인원은 캐나다가 173명(1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10.1%, 독일 8.3%, 스페인 7.8%, 프랑스 6.6%, 네덜란드 6.4%, 영국 6.3%, 호주 6.2%, 핀란드 6.2%, 이탈리아 5.6%, 노르웨이 5.6%, 미국 5.4%, 스웨덴 4.4%, 일본 4.0%, 뉴질랜드 3.5%, 스위스 2.8%

순으로 나타났다. 총 1,617명의 후기 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 2. 국가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국가수준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전체와 국가별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2</sup>). 16개 OECD 국가의 1인당 GDP<sup>23</sup>) 평균은 32,612.07US \$ 이며 청년실업률<sup>24</sup>)은 평균 11.95%에 달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 계수<sup>25</sup>)는 평균 .304이다. 국가별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당 GDP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가 47,639.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미국 42,414.14\$, 스위스 35,478.04\$, 호주 35,114.64\$, 네덜란드 35,111.42\$, 캐나다 35,105.99\$, 영국 32,732.14\$, 스웨덴 32,701.43\$, 독일 31,116.57\$, 핀란드 30,707.92\$, 일본 30,442.77\$, 프랑스 29,554.47\$, 이탈리아 28,279.89\$, 스페인 27,392.00\$, 뉴질 랜드 25,218.92\$, 한국 22,783.23\$ 순이었다.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 었다고는 하나 16개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 가장 낮은 경제발달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률은 이탈리아가 21.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프랑스 19.15%, 스웨덴 17.43%, 스페인 17.04%, 독일 15.38%, 핀란드 15.31%, 한국 9.85%, 캐나다 9.70%, 영국 9.42%, 노르웨이 9.09%, 미국 8.82%, 스위스 8.66%, 일본 8.34%, 호주 7.58%, 네덜란드 7.49%, 뉴질랜드 6.85% 순이다. 의외로 북구유럽 국가인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간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sup>22)</sup> 변인별 국가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sup>23)</sup> 본 연구의 1인당 GDP는 시가와 구매력을 고려하여 US \$로 조정한 1인당 국내총생산을 사용한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서는 이를 자연 Log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sup>24)</sup>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세-24세이나 OECD는 5세 간격으로 실업률을 제공하고 있어 20-24세 실업률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sup>25)</sup> 본 연구는 세후 GINI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범위는 완전 평등 0~완전불평등 1이다. 변인의 정규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표10> 국가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구분	1인당 CDP	 구분	청년	 구분	소득
노르웨이	GDP 47639.58	이탈리아	실업률 21.14	미국	<u>불평등도</u> 0.38
		. —	21.14		
미국	42414.14	프랑스	19.15	이탈리아	0.352
스위스	35478.03	스웨덴	17.43	뉴질랜드	0.335
호주	35114.63	스페인	17.04	영국	0.331
네덜란드	35111.41	독일	15.38	일본	0.321
캐나다	35105.98	핀란드	15.31	스페인	0.319
영국	32732.14	한국	9.85	캐나다	0.317
스웨덴	32701.43	캐나다	9.70	호주	0.315
독일	31116.57	영국	9.42	한국	0.306
핀란드	30707.92	노르웨이	9.09	프랑스	0.288
일본	30442.77	미국	8.82	독일	0.285
프랑스	29554.47	스위스	8.66	네덜란드	0.284
이탈리아	28279.89	일본	8.34	노르웨이	0.276
스페인	27392.00	호주	7.58	스위스	0.276
뉴질랜드	25218.92	네덜란드	7.49	핀란드	0.254
한국	22783.22	뉴질랜드	6.85	스웨덴	0.234
평균	32612.07	평균	11.95	평균	0.304
빈도	16	빈도	16	빈도	16
표준편차	6143.13	표준편차	4.74	표준편차	0.037
최소값	22783.22	최소값	6.85	최소값	0.234
최대값	47639.58	최대값	21.14	최대값	0.38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 계수는 미국이 .380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352, 뉴질랜드 .335, 영국 .331, 일본 .321, 스페인 .319, 캐나다 .317, 호주 .315, 한국 .306, 프랑스 .288, 독일 .285, 네덜란드 .284, 스위스 .276, 노르웨이 .276, 핀란드 .254, 스웨덴 .234 순으로 북구유럽 국가들이 나란히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여 이들 국가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16개국만을 대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국가수준의 경제발달수 준이 가장 뒤쳐져 있는데 반해 청년실업률과 소득불평등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 3 주요변인 기술통계치

본 절에서는 주요변인인 주관적 복지감, 사회자본, 사회지출의 전반적 수준과 국가별 수준을 살펴보았다.

## 1) 주관적 복지감

주관적 복지감의 두 가지 항목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이다. 행복감 전체평균은 3.25(최소값 1, 최대값 4)이며 생활만족도 전체평균은 7.36(최소값, 최대값 10)으로 최소값을 0점, 최대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백분위 점수는 각각 75.00점, 70.67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높으나 아주 높지는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11> 주관적 복지감 기술통계

	행	행복감		생활	만족도
구분 - 	평균	표준편차	- 구분 - 	평균	표준편차
영국	3.45	0.57	노르웨이	7.85	1.6
프랑스	3.4	0.59	핀란드	7.84	1.41
노르웨이	3.35	0.56	캐나다	7.73	1.86
스웨덴	3.32	0.58	스위스	7.71	1.54
캐나다	3.32	0.64	네덜란드	7.66	1.92
스위스	3.31	0.5	뉴질랜드	7.61	1.63
네덜란드	3.31	0.65	스페인	7.54	1.56
핀란드	3.3	0.48	영국	7.45	1.8
미국	3.28	0.54	미국	7.39	1.36
뉴질랜드	3.28	0.45	프랑스	7.28	1.59
호주	3.22	0.5	일본	7.2	1.39
스페인	3.18	0.55	이탈리아	7.16	1.63
이탈리아	3.18	0.58	독일	7.15	1.6
일본	3.17	0.55	스웨덴	7.07	1.3
독일	3.09	0.51	호주	7	1.34
한국	3.03	0.56	한국	6.57	1.53
 평균	3.25	0.56	평균	7.36	1.63
F 값	4.8	33***	F 값	5.85***	
빈도	1	617	빈도	1617	
최소값		1	최소값	1	
최대값		4	최대값		10

<sup>\*</sup>p< .05, \*\*< .01, \*\*\* p < .001

행복감은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83, p<.001). 후 기 청소년 행복감은 영국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프랑스 3.40, 노르웨이 3.35, 스웨덴 3.32, 캐나다 3.32, 네덜란드 3.31, 스위스 3.31, 핀란드 3.30, 뉴질랜드 3.28, 미국 3.28, 호주 3.22, 스페인 3.18, 이탈리아 3.18, 일본 3.17, 독일 3.09, 한국 3.03 순이었다. 국가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26)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영국보다 유의미하게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또한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85, p<.001).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국가간 차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노르웨이가 7.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핀란드 7.84, 캐나다 7.73, 스위스 7.71, 네덜란드 7.66, 뉴질랜드 7.61, 스페인 7.54, 영국 7.45, 미국 7.39, 프랑스 7.28, 일본 7.20, 이탈리아 7.16, 독일 7.15, 스웨덴 7.07, 호주 7.00, 한국 6.57 순으로 한국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한국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의 국가별 순위와 관련하여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나(노르웨이, 캐나다)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낮은 수준인 경우(한국, 독일)가 있는가 하면 행복감의 순위가비교적 높은 국가가 생활만족도는 낮은 경우(영국, 프랑스, 스웨덴)도 있어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의미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모두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대해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sup>26)</sup>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부록1]에 나타나 있다.

### 2)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크게 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으로 나누고 대인신뢰를 사적 대인신뢰와 사회적 대인신뢰로 조직신뢰를 사회 조직신뢰와 정부 조직신뢰로 관계망을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공식적 집단 관계망으로 나누어살펴 보았다???8).

각 변인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후기 청소년 대인신뢰 중 사적 대인신뢰는 3.27(최소값 1, 최대값 4), 사회적 대인신뢰는 2.46(최소값 1, 최대값 4)이다. 조직신뢰와 관련하여 사회조직신뢰는 2.45(최소값 1, 최대값 4), 정부조직신뢰는 2.43(최소값 1, 최대값 4)이다. 평균 1.07개의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최소값 0, 최대값 3)과 평균 0.64개(최소값 0, 최대값 6)의 공식적 집단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규범은 8.40(최소값 1, 최대값 10)이다. 각각을 백분위 점수 값으로 환산해 보면 사적 대인신뢰는 75.66점, 사회적 대인신뢰는 48.66점, 사회조직신뢰는 48.33점, 정부조직신뢰는 47.66점, 규범은 82.22점으로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조직신뢰, 정부조직 신뢰가50점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사적 대인신뢰와 규범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후기 청소년은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뢰하고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 언론·사회단체 등 사회조직, 정치·행정 등을 관할하는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범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sup>27)</sup> 일본은 대인신뢰에 관한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sup>28)</sup> 뉴질랜드는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대해 측정하고 있으나 세부문항 중 몇 문항씩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 일부 문항 누락으로 데이터에서 제외할 경우 심각한 자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뉴질랜드에 한해 사회적 대인신뢰는 1문항 값을 그대로, 사회 조직신뢰는 7 문항의 평균으로,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5개 문항만으로 합계와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회자본 하위항목으로 사용하였다. 관계망은 8개 문항을 합산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뉴질랜드가 제외한 설문항목은 사회적 대인신뢰 중 처음 만난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며 사회 조직신뢰 중 인권·자선단체, 공식적 집단 관계망 중 소비자 보호 단체이다.

# <표**12**> 사회자본 기술통계

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식	대인신뢰 사회 조			조직신뢰 정부 2			조직신뢰 바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걘	驱	<i>표</i> 판	걘	평균	표 판	걘	귦	표 판	卍	驱	표 판	걘	평균	표 판	걘	평균	표준 판가	卍	驱	표준 편차
노르웨이	3.50	.38	뉴쟐랜드	294	.72	판란드	261	.34	판란드	287	.48	캐타	1.52	1.13	미국	1.21	1.71	일본	8.98	1.31
뉴질랜드	3.44	.31	스웨덴	286	.52	노르웨이	260	.33	노르웨이	262	.49	4위스	1.44	.72	캐나	1.18	1.62	네덜란드	892	1.24
프랑스	3.38	.52	노르웨이	281	.54	캐나다	259	.47	캐나다	260	.60	판란드	1.34	.91	호주	1.01	1.21	이탈라아	8.68	1.28
판란드	3.37	.36	马	270	.61	한국	254	.43	스위스	254	.45	뉴질랜드	1.34	1.05	스웨덴	.98	.99	한국	8.67	1.40
스페인	3.35	.42	영국	268	.53	스웨덴	254	.37	스웨덴	253	.45	춋	1.28	1.02	판란드	.94	1.58	캐다	8.54	1.43
캐나다	3.35	.38	판란드	261	.61	영국	245	.51	화	252	.55	마국	1.26	1.03	뉴질랜드	.89	1.19	스페인	8.51	1.81
영국	3.32	.40	햣	258	.48	이탈라아	244	.38	阳	248	.61	노르웨이	1.25	.88	노르웨이	.87	.92	스위스	8.48	1.31
스웨덴	3.30	.48	캐나다	254	.58	더국	242	.55	뉴쟐랜드	246	.51	스웨덴	1.23	.85	스위스	.75	.90	화	8.45	1.41
桑	3.26	.38	스위스	251	.55	스위스	240	.35	영국	244	.63	네달란드	1.20	.94	영국	.65	1.21	판란드	8.36	1.24
스위스	3.18	.42	미국	245	.51	프랑스	240	.47	이탈라아	236	.41	한국	1.10	1.06	프랑스	.54	1.00	노르웨이	8.32	1.30
됙일	3.18	.46	스페인	244	.74	일본	240	.36	스페인	232	.53	영국	1.10	1.12	네덜란드	.44	.80	F	8.26	200
ㅁ굼	3.18	.48	이탈라아	216	.58	뉴질랜드	239	.39	일본	231	.52	이탈라아	.86	.89	이탈라아	.32	.76	됙일	8.25	1.58
한국	3.15	.38	독일	215	.67	호주	237	.38	한국	227	.48	됙일	.72	.73	한국	.29	1.12	영국	8.22	1.38
네덜란드	3.13	.47	한국	212	.54	네덜만	231	.45	네덜만	225	.51	巫丛	.61	.79	일본	.21	.54	스웨덴	8.17	1.53
이탈리아	3.04	.44	네덜란드	204	.54	스페인	230	.46	프랑스	224	.58	일본	.57	.75	스페인	.18	.81	뉴질랜드	8.08	1.84
일본	-	-	일본	-	-	독일	228	.50	됙일	219	.55	스페인	.43	.73	됙일	.18	.53	三县人	7.36	1.78
합계	3.27	.44	합계	246	.63	합체	245	.45	합체	243	.56	합계	1.07	.99	합계	.64	1.19	합계	840	1.54
F값	T값 8.26***		F값	19.00***		F값	5.73***		F값	11.53***		F값	13.14***		F값	값 10.97***		F값		
빈도	14	.89	빈도	13	880	빈도	13	33	빈도	14	.93	빈도	15	96	빈도	15	76	빈도	15	69
최소값		1	최소값		1	최소값		1	최소값		1	최소값	(	)	최소값	(	)	최소값	1	
최대값	4	4	최대값	4	4	최대값	4	4	최대값	4	4	최대값	3	3	최대값	$\epsilon$	,	최대값	1	0

<sup>\*</sup>p< .05, \*\*< .01, \*\*\* p < .001

사회자본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 대인신뢰(F=8.26, p<.001), 사회적 대인신뢰(F=19.00, p<.001), 사회조직신뢰(F=5.73, p<.001), 정부신뢰(F=11.53, 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F=13.14, p<.001), 공식적 집단 관계망(F=10.97, p<.001), 규범(F=5.84, p<.001)은 모두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적 대인신뢰는 노르웨이가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뉴질랜드 3.44, 프랑스 3.38, 핀란드 3.37, 캐나다 3.35, 스페인 3.35, 영국 3.32, 스웨덴 3.30, 호주 3.26, 독일 3.18, 스위스 3.18, 미국 3.18, 한국 3.15, 네덜란드 3.13, 이탈리아 3.0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인신뢰는 뉴질랜드가 2.94로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열 악한 상황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스웨덴 2.86, 노르웨이 2.81, 프랑스 2.70, 영국 2.68, 핀란드 2.61, 호주 2.58, 캐나다 2.54, 스위스 2.51, 미국 2.45, 스페인 2.44, 이탈리아 2.16, 독일 2.15, 한국 2.12, 네덜란드 2.04 순으로 나타났다. 사적 대인신뢰와 사회적 대인신뢰 모두 한국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사적 대인신뢰는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웨이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데 반해, 사회적 대인신뢰는 우리나라와 더불어하위권에 속하는 스위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사회적 대인신뢰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회 조직신뢰는 북유럽국가인 핀란드가 2.61, 노르웨이가 2.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2.59, 한국 2.54, 스웨덴 2.54, 영국 2.45, 이탈리아 2.44, 미국 2.42, 일본 2.40, 프랑스 2.40, 스위스 2.40, 뉴질랜드 2.39, 호주 2.37, 네덜란드 2.31, 스페인 2.30, 독일 2.28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었다. 정부 조직신뢰의 경우 핀란드 2.87, 노르웨이 2.62, 캐나다 2.60, 스위스 2.54, 스웨덴 2.53, 호주 2.52, 미국 2.48, 뉴질랜드 2.46, 영국 2.44, 이탈리아 2.36, 스페인 2.32, 일본 2.31, 한국 2.27, 네덜란드 2.25, 프랑스 2.24, 독일 2.19 순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후기 청소년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캐나다, 핀란드 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정부 조직신뢰 수준을 나타났다.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캐나다가 평균 1.52개의 관계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위스 1.44, 뉴질랜드 1.34, 핀란드 1.34, 호주 1.28, 미국 1.26, 노르웨이 1.25, 스웨덴 1.23, 네덜란드 1.20, 영국 1.10, 한국 1.10, 이탈리아 .86, 독일 .72, 프랑스 .61, 일본 .57, 스페인 .43 순으로 한국은 중하위에 위치하며 최하위인 스페인 보다는 유의미하게 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 크기는 미국이 1.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1.18, 호주 1.01, 스웨덴 .98, 핀란드 .94, 뉴질랜드 .89, 노르웨이 .87, 스위스 .75, 영국 .65, 프랑스 .54, 네덜란드 .44, 이탈리아 .32, 한국 .29, 일본 .21, 스페인 .18, 독일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공식적 집단 관계망 크기가 가장 큰 미국과 캐나다보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 크기가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사후검증 결과 나타났다. 관계망의 크기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미국 같은 북아메리카 국가들이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범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 8.92, 이탈리아 8.68, 한국 8.67, 캐나다 8.54, 스페인 8.51, 스위스 8.48, 호주 8.45, 핀란드 8.36, 노르웨이 8.32, 미국 8.26, 독일 8.25, 영국 8.22, 스웨덴 8.17, 뉴질랜드 8.08, 프랑스 7.36 순이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규범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한국은 프랑스 보다 규범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사적, 사회적 대인신뢰 수준이 모두 낮았다. 특히 사회적 대인신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열악하였다. 조직신뢰와 관 련해서는 정부 조직 신뢰 수준이 낮았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 크기 또한 작았다. 반면에 규범 수준은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자본의 하위 영역 별로 국가별 위치가 다양하지만 대인신뢰와 조직신뢰는 북구 유럽국가들이 고르 게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망은 북미 국가들에서 규범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비교 적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 3) 사회지출

사회지출은 국가수준 측정변인이며 고등교육지출과 훈련지출로 나누어진다. 분석 결과 OECD 16개국은 GDP의 평균 1.17%를 고등교육지출에 GDP의 평 균 0.49%를 훈련지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사회지출 기술통계

구분	고등교육지출	구분	훈련지출
미국	2.57	스웨덴	0.87
캐나다	2.16	프랑스	0.82
한국	2.1	네덜란드	0.76
뉴질랜드	1.14	핀란드	0.75
호주	1.14	독일	0.7
스위스	1.07	스페인	0.68
일본	1.07	노르웨이	0.58
핀란드	1.07	이탈리아	0.51
프랑스	0.94	스위스	0.49
영국	0.89	영국	0.43
스웨덴	0.85	호주	0.31
노르웨이	0.84	뉴질랜드	0.3
스페인	0.83	캐나다	0.27
네덜란드	0.8	일본	0.22
독일	0.68	한국	0.09
이탈리아	0.6	미국	0.09
평균	1.17	평균	.49
빈도	16	빈도	16
최소값	.600	최소값	.09
최대값	2.570	최대값	.87

국가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지출의 경우 미국이 GDP 중 2.57%를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캐나다가 2.16%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GDP의 2.16%를 지출하여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지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1.14%, 호주 1.14%, 스위스 1.07%, 일본 1.07%, 핀란드 1.07%, 프랑스 0.94%, 영국 0.89%, 스웨덴 0.85%, 노르웨이 0.84%, 스페인 0.83%, 네덜란드 0.8%, 독일 0.68%, 이탈리아 0.6% 순이었다.

훈련지출은 스웨덴이 GDP의 .87%를 지출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프랑스 .82%, 네덜란드 .76%, 핀란드 .75%, 독일 .70%, 스페인 .68%, 노르웨이 .58%, 이탈리아 .51%, 스위스 .49%, 영국 .42%, 호주 .31%, 뉴질랜드 .30%, 캐나다 .27%, 일본 .22%, 한국 .09%, 미국 .09% 순이었다.

고등교육지출과 훈련지출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지출 비율이 높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이 훈련지출 비율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가 고등교육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훈련정책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구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는 고등교육지출 비율이 낮은 반면 훈련지출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 4 주요변인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절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체계적 결측, 다중공선성, 분포의 정규성을 검증하고 위계선형모형 분석에 필요한 중심점 교정 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체계적 결측에 대한 확인과 처리

결측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료의 정보가 손실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결측치의 양과 결측의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례수가 수백 개 이상일 때 10-15개 정도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독립변인의 결측치 비율을살펴본 결과 변인에 따라 수십 개 이상의 결측치가 나타나 체계적 결측에 대한확인과 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sup>29</sup>).

둘째, 결측의 형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결측이 발생한 경우 결측치를 갖고 있는 응답자와 결측치를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와 체계적으로 자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관측된 응답만으로 추정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배병렬, 2002). 체계적 결측이 발생했는지는 결측치가 포함된 집단과 결측치가 포함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Bourque & Clark, 1992) 본 연구에서는 결

<sup>29)</sup> 국가수준측정 변인에는 결측치가 없어 따로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측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독립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체계적 결측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회조직 신뢰,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 계층 간에 무작위 결측30)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측치 처리 방법31) 중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 MI)을 활용하였다. 다중대체방법은 단일대체방 법의 주요 장점인 결측이 없는 완전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Schafer, 1999; Rubin & Little, 2002) 결측값을 모 두 하나의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나타나는 단일 대체방법의 결점을 피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다중대체는 단일대체와 달리 한 번 이상 결측을 대체한다 는 의미이다. 즉, 단일대체법이 한 개의 대체값을 구하는 것과 달리 다중대체법은 다수의 후보값을 구하여 그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체값을 구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해 자료분석을 실시한 후 추정된 계수를 통합하는 방법이다(King et al., 2001; Rubin & Little, 2002). 이 때 다중대체의 횟수로는 결측치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3회에서 10회의 대체를 반복하 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es et al., 2006). HLM 통계프로그램은 최대 10회까지의 다중대체를 분석할 수 있어 본 연구는 10회의 다중대체를 실시 하였다. 다중대체방법은 결측의 유형이 완전무작위 결측이나 임의적 결측이고 각 변수가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고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인을 대체모형에서 모 두 포함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정된 변인의 값에서 편의가 거의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ng et al, 2001). 이러한 방법으로 결측치를 보완 하여 모든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sup>32</sup>). 다중대체를 위해 SPSS Windows 18.0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33).

<sup>30)</sup> 결측에는 완전무작위 결측(Missing at random; MCAR), 임의적 결측(Misssing at random, MAR), 무시할 수 없는 결측(Non-ignorable)이 있는데 완전무작위 결측은 결측치가 모든 사례에 대해 임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작위 결측은 한 변인에서 자료가 결측될 확률이 자료의 다른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시할 수 없는 결측은 결측이 발생할 확률을 주어진 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ubin & Little, 2002).

<sup>31)</sup> 결측값을 갖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크게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 단일대체방법(Single imputation),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대체방법에는 평균대체방법, 일치대응대체법, 핫덱대체방법, 회귀대체방법이 있다(강민아·김경아, 2006).

<sup>32)</sup>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결측치 비율과 다중대체법으로 생성된 10개의 데이터 셋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부록2]에 제시하였다.

<sup>33)</sup> 이 절부터는 다중대체방법을 통해 결측치를 대체한 결측이 없는 완전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번의 다중대체를 실시하였는데 이 경우 10개 셋의 분석 결과와

## 2)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행복감,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의 진단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14**> 다중공선성 진단

 구분	행.	복감	생활명	만족도
	공차	VIF	공차	VIF
사회자본				·
사적 대인신뢰	.821	1.218	.821	1.218
사회적 대인신뢰	.801	1.249	.801	1.249
사회 조직신뢰	.643	1.554	.643	1.554
정부 조직신뢰	.632	1.583	.632	1.583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762	1.313	.762	1.313
공식적 집단 관계망	.779	1.284	.779	1.284
규범	.962	1.039	.962	1.039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				
성별	.976	1.024	.976	1.024
연령	.917	1.091	.917	1.091
교육수준	.671	1.491	.671	1.491
본인직업유무	.885	1.131	.885	1.131
가장직업유무	.943	1.061	.943	1.061
주관적사회계층	.882	1.134	.882	1.134
사회지출				
고등교육지출	.307	3.258	.307	3.258
훈련지출	.117	8.542	.117	8.542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1인당 GDP	.614	1.629	.614	1.629
청년실업률	.361	2.772	.361	2.772
소득불평등도	.398	2.513	.398	2.513

통합 분석 결과가 도출된다. 결과 부분에는 이 통합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 3) 분포의 정규성 검증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참조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의 경우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주요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은 모두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분포의 정규성 검증

구분	구분	왜도	(S.E)	첨도	(S.E)
	주관적 복지감				
개인수준	행복감	263	.019	.754	.039
측정변인	생활만족도	-1.011	.019	1.647	.039
	사회자본				
	사적 대인신뢰	699	.019	.926	.039
	사회적 대인신뢰	298	.019	243	.039
	사회 조직신뢰	294	.019	.567	.039
	정부 조직신뢰	110	.019	.030	.039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523	.019	829	.039
	공식적 집단 관계망	2.502	.019	7.010	.039
	규범	-1.152	.019	1.137	.039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				
	성별	.103	.019	-1.990	.039
	연령	043	.019	-1.255	.039
	교육수준	423	.019	805	.039
	본인직업유무	.177	.019	-1.969	.039
	가장직업유무	-1.710	.019	.925	.039
	주관적사회계층	194	.019	404	.039
국가수준	사회지출				
측정변인	고등교육지출	.986	.019	613	.039
	훈련지출	145	.019	-1.371	.039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			
	1인당 GDP	.749	.019	.749	.039
	청년실업률	.625	.019	-1.101	.039
	소득불평등도	.077	.019	.131	.039

## 4) 중심점 교정

다층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인의 척도는 크게 예측변수의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원자료를 편차점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특히 원자료를 편차점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예측변인의 원점을 변수분포의 중심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인 중심점 교정법이 중요한 척도전환법으로 활용된다 (Raudenbush & Bryk, 2001). 중심점 교정법은 다층모형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HLM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층자료 분석 방법에서 연구자가 선정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본 연구와 같이 2수준 다층모형의 경우 중심점 교정은 1수준 예측변인에 대한 교정과 2수준 예측변인에 대한 교정의 두 가지 방향으로이루어 질 수 있다. 다층모형에서 예측변인의 척도를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예측변인의 원자료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uncentered), 예측변인의 전체 평균값을 원점으로 교정하는 방법(grand mean centering), 각 집단의 평균을 원점으로 교정하는 방법(group mean centering)이 대표적이다(강상진·정혜영, 2002).

0값이 실제적 의미를 가질 경우 원자료 척도를 사용한다. 또한 예측변인이 성별과 같이 가변수(dummy variable)일 경우에도 절편계수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중심점 교정을 실시한다.

HLM 프로그램의 저자들은 전체평균으로 중심점을 교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Bryk & Raudenbush, 1992). 이에 1단계와 2단계의 독립변인 중 가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전체평균 중심점 교정(grand 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전체평균 중심점 교정은 각 예측변인들이 전체평균을 중심으로 편차값을 갖도록 전환하는 방법으로 절편의 신뢰도가 높고 집단간 분산 추정이 정밀하며 설명력이 크다(강상진, 정혜경, 2002). 특히 전체평균 중심점 교정법은 원자료와 집단평균 중심점 교정법에 비해 2단계 모형 절편의 집단간 잔차 분산이 가장적어 2단계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한다. 또한 1단계 공변수를 교정한 후의 2단계 예측변인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전체평균 중심점 교정이 바람직하며, 맥락효과와 개인수준 효과를 분리하는 데에도 적합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Raudenbush & Bryk, 2002).

다층모형에서 중심점 교정을 실시하게 되면 절편 모수 값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밖에 기울기 모수, 신뢰도, 분산 및 설명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강상진·정혜영, 2002).

## 5 상관관계

결측치를 대체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 측정변인(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 과 국가수준 측정변인(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을 동시에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은 생활 만족도(p<.01), 사적 대인신뢰(p<.001), 사회적 대인신뢰(p<.001), 사회 조직신뢰 (p<.001), 정부 조직신뢰(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p<.001), 공식적 집단 관계 망(p<.001), 규범(p<.001), 성별(p<.001), 본인 직업 유무(p<.001), 가장직업유무 (p<.001), 주관적 사회계층(p<.001)이며,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수준 측정변인은 고등교육지출(p<.001), 훈련지출(p<.001), 1인당 GDP(p<.001), 청년실업률(p<.05), 소득불평등도(p<.01)이다. 개인수준에서 생활만족 도가 높을수록, 사적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사회 조 직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클수록 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클수록, 규범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국가수준에서는 고등교육지출이 낮을수록, 훈련지출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 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자본의 7개 하위요소가 모두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지출은 훈련지출이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갖는 반면,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과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후기 청소년 은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 외에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은 행복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은 사적 대인신뢰(p<.001), 사회적 대인신뢰(p<.001), 사회 조직신뢰(p<.001), 정부 조직신뢰(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p<.001), 공식적 집단 관계망(p<.01), 규범(p<.01), 연령(p<.001), 교육수준(p<.01), 본인직업유무(p<.01), 가장직업유무(p<.01), 주관적 사회계층(p<.01)이며 국가수준 측정변인은 고등교육지출(p<.01), 훈련지출

(p<.001), 1인당 GDP(p<.001), 청년실업률(p<.01), 소득불평등도(p<.001)이다. 즉, 사 적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사회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조직 신뢰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클수록, 공식적 집단 관계망 이 클수록, 규범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국가수준에서는 고등교육 지출이 낮아질수록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청년실업률 이 낮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생활만족도와 관 련 변인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7개 영역이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가 약간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행복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 는 반면 훈련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생활만족도를 증가시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 지 않았을 때 고등교육지출 증가가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행복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지출이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 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정지범, 2011). 고등교육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국가 가 후기 청소년의 전이에 있어 직업으로의 전이보다 고등교육으로의 전이에 집중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국가의 청소년은 중등교육 이수 이후 다양한 진로 에 고민하기보다는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체계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고등 교육지출의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다수 나타났으나 훈련지출과 고등교육지출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의심될 수 있는 -.784(p<.001)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는 앞에서 고등교육지출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 미국 등의 국가가 훈련 지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 반대로 훈련지출에 적극적인 스웨덴 등 북구유럽 국가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지출비율이 낮은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VIF를 통한 다중공선성 검토에서는 훈련지출 변인과 고등교육지출 변인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회귀분석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소득불평등도, 청년실업률 등이 분석과정에서 동시에 포함되어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후기 청소년기 전이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의 프록시로 고등교육지출과 훈련지출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한 변인이 누락되는 경우 연구 목적의 상당부분이 소실될 위험이 있다.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학자들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는 상관계수인 .8을 넘지는 않았으므로 연구자는 고등교육지출과 훈련지출을 모형에 동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변인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 전체평균 센터링을 통해 변인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데 HLM 분석과정에서 이러한 센터링이 활용되므로 상관계수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표16> 개인수준 국기수준 측정변인 상관관계

								. <b>7</b> 71	1 🗠	701			' ''							
	주관적	복지감				사회자본					;	개인수준측	정 통제변	인		사회	지출	국가수	준측정 통	제변인
구분	행복감	생활 만족도	사적 대인 신뢰	사회 적 대인 신뢰	사회 조직 신뢰	정부 조직 신뢰	비공 식적 집단 관계 망	공식 적 집단 관계 망	규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본인 직업 유무	가장 직업 유무	주관적 사회 계층	고등 교육 지출	훈련 지출	1인당 GDP	청년 실업 률	소득 불평 등도
행복감	1											:								
생활만족도	.463**	1																		
사적 대인신뢰	.186***	.211***	1																	
사회적 대인신뢰	.135***	.161***	.363***	1																
사회 조직신뢰	.092***	.147***	.188***	.200***	1															
정부 조직신뢰	.129***	.214***	.201***	.206***	.566***	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076***	.127***	.109***	.109**	.150**	.162**	1													
공식적 집단 관계망	.055***	.036**	.077***	.104***	.074***	.087***	.412***	1												
규범	.028***	.079**	.061***	.017*	.033***	.099****	.026***	046***	1											
성별	045***	.002	.041***	008	075***	042***	.017*	034***	069***	1										
연령	.005	039***	044***	011	017*	057***	012	.035***	.014	017*	1									
ज <del>्ञभेनट</del>	.013	.054***	.092***	.142***	.130***	.120***	.158***	.034***	.083***	019*	.159***	1								
본인직업유무	.052***	.043**	.016*	011	008	.054***	.024**	.162***	004	.012	.144***	080***	1							
가장직업유무	.031***	.079**	.108***	.010	.021***	.065***	009	030***	.031***	006	039***	.095***	.109***	1						
주관적 사회계층	.085***	.167***	.092***	.095***	.090***	.134***	.121***	.043***	.024**	.058***	048**	.285***	038***	.109***	1					
고등교육지출	030***	038**	021***	037***	.116***	.057***	.161***	.143***	.036***	.002	.035***	.122***	.045***	.025***	.081***	1				
훈련지출	.067***	.081***	.067***	.073***	072***	010	119***	071***	086***	003	044***	298***	056***	074***	117***	784***	1			
1인당 CDP	.112***	.127****	.086***	.159***	.034***	.135***	.137***	.183***	012	027**	072***	248***	.149***	032***	048***	.044***	.056***	1		
청년실업률	018*	022***	006	003	041***	054**	196***	119***	093***	.007	.032****	125***	130***	008	042***	453***	.611***	343***	1	
소득불평등도	020**	025 <sup>totok</sup>	079***	076***	060***	062***	023***	.016*	.037***	.004	003	.078***	.102***	.081***	.025***	.403***	651***	007	196***	1

<sup>\*</sup> p<.05, \*\* p<.01, \*\*\* p<.001

<sup>\*</sup> 주: 성별(0=남성, 1=여성), 본인직업유무(0=없음, 1=있음), 가장직업유무(0=없음, 1=있음)

## 제2절. 연구모형 분석

## 1. 기초모형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초모형은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과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으로 구분되며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대입하여 혼합 모형을 얻을 수 있다.

## 1) 행복감 기초모형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34).

##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Prob[Rij  $\leq 1 \mid \beta j$ ] =  $\phi * 1 i j$  =  $\phi 1 i j$ 

Prob[Rij  $\leq 2 |\beta_j| = \phi^* 2ij = \phi 1ij + \phi 2ij$ 

Prob[Rij  $\leq 3 | \beta j$ ] =  $\phi*3ij$  =  $\phi1ij$  +  $\phi2ij$  +  $\phi3ij$ 

 $Prob[Rij \le 4 | \beta j] = 1.0$ 

φ1ij = Prob[행복감(1) = 1 | βj]

φ2ij = Prob[행복감(2) = 1 | βi]

φ3ij = Prob[행복감(3) = 1 | βi]

 $\log[\phi 1ij/(1 - \phi 1ij)] = \beta 0j$ 

 $\log[\phi 2ij/(1 - \phi 2ij)] = \beta 0j + \delta 2$ 

 $log[\phi 3ij/(1 - \phi 3ij)] = \beta 0j + \delta 3$ 

<sup>34)</sup> 행복감은 4점 리커트 서열척도로 측정되어 HG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행복감이 높은 쪽을 1, 낮은 쪽을 4로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 0j = y00 + u0j$   $\delta 2 \qquad \delta 3$ 

행복감의 서열범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서열 로짓분석35) 결과로써 각 범주별로 한 단계 상위 범주에 속하게 될 확률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기초모형분석은 행복감의 전체 변량을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변량으로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최소 모형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수준 자료에서의 변량의 차이만을 분석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행복감에 대한 국가수준 간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양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수준의 변량은 0.169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는 0.041로 행복감의 전체 변량중 4.1%가 국가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며 나머지 95.9%는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에 해당한다36).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행복감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또한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행복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의 통계적 필요성과 함께 행복감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sup>35)</sup> 서열로짓 모형은 범주1(매우 행복하다)에 대한 범주 2-4, 범주 2(행복한 편이다)에 대한 범주 3-4, 범주 3(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에 대한 범주 4(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연속된 이항로 짓의 값을 단순화 한 것이다.

<sup>36)</sup> 다층모형의 경우 본 자료와 같이 개인 표본 수에 비하여 국가의 표본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ICC는 일반적으로 20%를 넘지 않으며 5%를 넘으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Duncan & Raudenbush, 1999).

<표17> 행복감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승수비	t
 절편(γ00)	-0.791	0.102	0.452	-7.719***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T <sub>00</sub> )	0.412		0.169	726.783***
집단내 변량(∏ <sup>2</sup> )			$\Pi^2/3^{37}$	720.783****
집단 내		0.041		
상관계수(ICC)		0.041		

<sup>\*</sup> p<.05, \*\* p<.01, \*\*\* p<.001

HGLM에서는 HLM과 달리 1수준 무선효과의 정상성(normality)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간-집단내 변량 비교가 진행될 수 없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행복감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집단 간 변량의 변화만을 살펴본다.

## 2) 생활만족도 기초모형

다음은 생활만족도38)를 종속변인으로 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ij = β0j + rij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 0j = y00 + u0j$$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ij = y00 + u0j+ rij

<sup>\*</sup> 집단 내 상관계수(ICC)= 집단간 변량( $\tau_{00}$ )/(집단 간 변량( $\tau_{00}$ ) +  $\Pi^2$ )

<sup>37)</sup> 로짓모형에서 집단내 변량은  $\Pi^2/3$ 으로 고정된다. 이때  $\Pi^2/3$ 은 로지스틱 분포의 분산이다.

<sup>38)</sup> 생활만족도는 H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7.388로 기초 통계로 산출된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동일하였다(t=83.681, p<.001).

<표18>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00)	7.388	0.085	86.4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T <sub>00</sub> )	0.349	0.122	890.660***
집단내 변량(σ²)	1.592	2.535	090.000
집단 내 상관계수(ICC)	0	.046	

<sup>\*</sup>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인 및 국가수준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양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수준의 변량은 0.122, 개인수준의 변량은 2.535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046으로 생활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4.6%가 국가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며 나머지 95.4%는 개인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량 비율을 볼 때,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국가 수준에서 보다는 국가 내 개인 사이에서 더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생활만족도가 같다는 가설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생활만족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통계적 필요성과 함께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측정 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중간모형 1: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본 절에서는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인 사회자본 변량 설명을 위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은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에만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에는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다층분석 모형이다.

<sup>\*</sup> 집단 내 상관계수(ICC)= 집단간 변량(T<sub>00</sub>)/(집단 간 변량(T<sub>00</sub>) + 집단 내 변량( $\sigma^2$ ))

## 1)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에 대한 수식이다<sup>39</sup>).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Prob[Rij \le 1 \mid \beta j] = \phi*1ij = \phi1ij$ 

Prob[Rij  $\leq 2 | \beta j$ ] =  $\phi*2ij$  =  $\phi1ij$  +  $\phi2ij$ 

Prob[Rij  $\leq 3 \mid \beta j$ ] =  $\phi*3ij$  =  $\phi1ij$  +  $\phi2ij$  +  $\phi3ij$ 

 $Prob[Rij <= 4 | \beta j] = 1.0$ 

φ1ij = Prob[행복감(1) = 1 | βj]

φ2ij = Prob[행복감(2) = 1 | βj]

φ3ij = Prob[행복감(3) = 1 | βj]

log[φ1ij/(1 - φ1ij)] = β0j + β1j\*(성별ij) + β2j\*(연령ij) + β3j\*(교육수준ij) + β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 6j\*(주관적사회계층ij) + β7j\*(사적대인신뢰ij) + β8j\* (사회적대인신뢰ij)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 (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 12j\*(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3j\*(규범ij)

log[φ2ij/(1 - φ2ij)] = β0j + β1j\*(성별ij) + β2j\*(연령ij) + β3j\*(교육수준ij) + β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 6j\*(주관적사회계층ij) + β7j\*(사적대인신뢰ij) + β8j\* (사회적대인신뢰ij)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 (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 12j\*(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3j\*(규범ij) + δ2

<sup>39)</sup>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조 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전체평균으로 센터링되었다.

log[φ3ij/(1 - φ3ij)] = β0j + β1j\*(성별ij) + β2j\*(연령ij) + β3j\*(교육수준ij) + β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 6j\*(주관적사회계층ij) + β7j\*(사적대인신뢰ij) + β8j\* (사회적대인신뢰ij)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 (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 12j\*(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3j\*(규범ij) + δ3

##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 0j = y00 + u0j$ 

 $\beta 1j = y10$ 

 $\beta 2j = y20$ 

 $\beta 3j = y30$ 

 $\beta 4j = y40$ 

 $\beta 5j = y50$ 

 $\beta 6j = y60$ 

 $\beta 7j = y70$ 

 $\beta 8j = y80$ 

 $\beta9j = y90$ 

 $\beta 10j = y100$ 

 $\beta 11j = y110$ 

 $\beta 12j = y120$ 

 $\beta 13j = y130$ 

δ2 δ3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사회자본 중 사적 대인신뢰(t=16.584, p<.001), 사회적 대인신뢰(t=2.279, p<.05), 사회 조직신뢰(t=2.868, p<.01), 정부 조직신뢰(t=3.892, 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t=4.478, p<.001), 규범(t=2.854, t=.01)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인 중 유일하게 공식적 집단 관계망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교육수준, 가장직업유무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별(t=-6.871, p<.001), 연령(t=3.881, p<.001), 본인직업유무(t=.2.641, p<.01), 주관적 사회계층(t=8.418, p<.001)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승수비	t
	-0.830	0.104	0.435	-7.975***
사회자본				
사적 대인신뢰	0.690	0.041	1.995	16.584***
사회적 대인신뢰	0.070	0.029	1.073	2.379*
사회 조직신뢰	0.136	0.047	1.145	2.868**
정부 조직신뢰	0.148	0.038	1.160	3.892***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0.086	0.019	1.090	4.478***
공식적 집단 관계망	-0.010	0.015	0.989	-0.671
규범	0.032	0.011	1.032	2.854**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0.231	0.033	0.793	-6.871***
연령	0.039	0.010	1.040	3.881***
교육수준	-0.018	0.011	0.981	-1.649
본인직업유무	0.095	0.035	1.099	2.641**
가장직업유무	0.070	0.045	1.073	1.558
주관적 사회계층	0.170	0.020	1.185	8.418***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τω)	0.374		0.139	590.854***
집단내 변량(σ²)			$\Pi^2/3$	390.634****

<sup>\*</sup> p<.05, \*\* p<.01, \*\*\* p<.001

<sup>\*</sup> 주: 모형설명량( $R^2$ )= (투입 전 변량- 투입 후 변량)/ 투입 전 변량 x 100

승수비로 설명하면 사적 대인신뢰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995배, 사회적 대인신뢰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073배, 사회 조직신뢰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145배, 정부 조직신뢰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160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090배, 규범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032배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성별이 남자인 경우 여자보다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0.79배, 연령이 한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040배, 본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40)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073배, 주관적 사회계층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1.185배이다.

종합하면 친밀하거나 면식이 있는 사람과의 사적 대인신뢰가 높아질수록, 일 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인신뢰가 높아질수록, 종교·사회단체나 언론 등에 관한 사회 조직신뢰가 높아질수록, 입법, 행정, 의회, 경찰, 군대 등에 대한 정부 조직신뢰가 높아질수록 종교, 문화 등에 관한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커질수록, 규범 수준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질 확률이 증가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질 확률이 증가한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139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 =590.854, p<.001) 개인수준 측정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다음은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에 대한 수식이다<sup>41)</sup>.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sup>40)</sup>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직업이 없는 경우에 포함시켰다.

<sup>41)</sup>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 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전체평균으로 센터링 되었다.

##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 $ij = \beta 0j + \beta 1j^*(성 \pm ij) + \beta 2j^*(연령 ij) + \beta 3j^*(교육수준 ij) + \beta$ 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6j\*(주관적사 회계층ii) + β7j\*(사적대인신뢰ii) + β8j\*(사회적대인신뢰ii)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 식적집단관계망ij) + β12j\*(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3j\*(규범 ij) + rij

##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 0j = y00 + u0j$ 

 $\beta 1i = y10$ 

 $\beta 2i = \chi 20$ 

 $\beta 3i = y30$ 

 $\beta 4j = y40$ 

 $\beta 5j = y50$ 

 $\beta 6j = y60$ 

 $\beta 7i = y70$ 

 $\beta 8j = y80$ 

 $\beta 9j = y90$ 

 $\beta 10i = y100$ 

 $\beta 11j = y110$ 

 $\beta 12j = y120$ 

 $\beta 13j = y130$ 

####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LIFESATIij = y00 + y10\*성별ij + y20\*연령ij + y30\*교육수준ij + y40\*본인 직업유무ij + y50\*가장직업유무ij + y60\*주관적사회계층ij + y 70\*사적대인신뢰ii + y80\*사회적대인신뢰ii + y90\*사회조직신 뢰ii + y100\*정부조직신뢰ii + y110\*비공식적집단관계망ii + ɣ120\*공식적집단관계망ij + ɣ130\*규범ij + u0j+ rij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0>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ɣ00)	7.186	0.115	62.475***	
사회자본				
사적 대인신뢰	0.409	0.080	5.071***	
사회적 대인신뢰	0.117	0.066	1.768	
사회 조직신뢰	0.157	0.157	0.997	
정부 조직신뢰	0.277	0.096	2.888**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0.125	0.046	2.705**	
공식적 집단 관계망	-0.058	0.034	-1.712	
규범	0.056	0.027	2.039*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0.001	0.078	0.018	
연령	-0.003	0.021	-0.157	
교육수준	0.058	0.022	2.670**	
본인직업유무	0.102	0.066	1.556	
가장직업유무	0.176	0.070	2.490*	
주관적 사회계층	0.247	0.046	5.297***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τω)	0.360	0.130	1064.436***	
집단내 변량(σ²)	1.508	2.275	1004.430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	녕량(R²)	
투입 전 집단 내 변량	2.535	10.26%		
투입 후 집단 내 변량	2.275			

<sup>\*</sup> p<.05, \*\* p<.01, \*\*\* p<.001

고정효과 분석 결과 사회자본 중 사적 대인신뢰(t=5.071, p<.001), 정부 조직신뢰(t=2.888, 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t=2.705, p<.001), 규범(t=2.039, p<.001) 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교육수준(t=.2.670, p<.001), 가장직업유무(t=2.490, p<.001), 주관적 사회계층(t=.5.297, p<.0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사적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을수록, 규범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

<sup>\*</sup> 주: 모형설명량(R²)= (투입 전 변량- 투입 후 변량)/ 투입 전 변량 x 100

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이 직업이 있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0.130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 =1064.436, p<.001) 개인수준 측정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수준측정 변인 투입전인 2.535에서 투입 후 2.275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인수준측정 변인의 설명량( $\mathbb{R}^2$ )은 10.26%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중간모형 2: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

본 절에서는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인 사회지출 변량 설명을 위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은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에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에만 변인을 투입하였다.

## 1) 행복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수식이 다<sup>42</sup>).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sup>42) 1</sup>인당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전체평균으로 센터링 되었다.

## 1수준 모형(국가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Prob[Rij \le 1 \mid \beta j] = \phi*1ij = \phi1ij$ 

Prob[Rij  $\leq 2 |\beta_j| = \phi^*2ij = \phi^*1ij + \phi^*2ij$ 

Prob[Rij  $\leq$  3 |  $\beta$ j] =  $\phi$ \*3ij =  $\phi$ 1ij +  $\phi$ 2ij +  $\phi$ 3ij

 $Prob[Rij \le 4 | \beta j] = 1.0$ 

 $\phi$ 1ij = Prob[행복감(1) = 1 | βi]

φ2ij = Prob[행복감(2) = 1 | βi]

φ3ij = Prob[행복감(3) = 1|βj]

 $log[\phi 1ij/(1 - \phi 1ij)] = \beta 0j$ 

 $\log[\phi 2ij/(1 - \phi 2ij)] = \beta 0j + \delta 2$ 

 $log[\phi 3ij/(1 - \phi 3ij)] = \beta 0j + \delta 3$ 

#### 2수준 모형(국가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사회지출 중 훈련지출(t=2.181, p<.10)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출 중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은 1인당 GDP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과 소득불평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승수비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훈련지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4.741배이며 이는 국가의 훈련지출이 증가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1인당 GDP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질 승수는 2.265배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증가했을 때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21> 행복감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승수비	t
절편(γ00)	-0.792	0.071	0.452	-11.014***
사회지출				
고등교육지출	0.172	0.157	1.188	1.099
훈련지출	1.556	0.713	4.741	2.181†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1인당 GDP	0.818	0.344	2.265	2.376*
청년실업률	-0.034	0.022	0.966	-1.505
소득불평등도43)	1.132	0.904	3.104	1.253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τ <sub>00</sub> )	0.375	0.141	387.483***	
집단내 변량(o²)		$\Pi^2/3$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	$R^2$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169		16.56%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141			

<sup>†</sup> p<.10 \*p<.05 \*\*p<.01 \*\*\*p<.00144)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141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chi^2$ =387.483, p<.001) 이는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이 국가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감의 집단간 변량은 국가특성 투입 전 0.169에서 투입 후 0.141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행복감에 대한 국가 특성 변인의 설명량( $R^2$ )은 1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sup>\*</sup> 주: 모형설명량(R<sup>2</sup>)= (투입 전 변량- 투입 후 변량)/ 투입 전 변량 x 100

<sup>43)</sup> 소득불평등도의 값은 0(완전평등)-1(완전불평등)으로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며 자연로그를 취하여 활용하였다.

<sup>44)</sup> 국가수준의 측정변인 검토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10%를 사용하였다.

## 2)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

다음은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에 대한 수식이 다45).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ij = β0j + rij

####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β0j = γ00 + γ01\*(1인당GDPj) + γ02\*(청년실업률j) + γ03\*(소득불평등도j) + γ04\*(고등교육지출j) + γ05\*(훈련지출j) + u0j

####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ij = y00 + y01\*1인당GDPj + y02\*청년실업률j + y03\*소득불평 등도i + y04\*고등교육지출j + y05\*훈련지출j + u0j+ rij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up>45) 1</sup>인당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전체평균으로 센터링 되었다.

<표22>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지출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00)	7.388	0.063	116.625***
사회지출			
고등교육지출	0.130	0.154	0.845
훈련지출	1.482	0.550	2.693*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1인당 GDP	0.519	0.374	1.389
청년실업률	-0.042	0.018	-2.333*
소득불평등도	1.272	0.818	1.556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τω)	0.316	0.100	427.542***
집단내 변량(σ²)	1.592	2.535	427.342****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	명량(R²)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122	10 (	72.0/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100	18.0	J3 %

<sup>†</sup> p<.10 \*p<.05 \*\*p<.01 \*\*\*p<.001

고정효과 분석 결과 사회지출 중 고등교육지출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훈련지출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t=2.693, p<.01).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청년실업률 (t=-2.333, p<.05)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후기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훈련지출은 행복 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1인당 GDP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년실업률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100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chi^2$ =427.542, p<.001) 이는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국가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집단 간 변량은 국가특성 투입 전 0.122에서 투입 후 0.100으로 감소하였으며이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국가 특성 변인의 설명량( $R^2$ )은 18.03%인 것으로 나타났다.

<sup>\*</sup> 주: 모형설명량(R²)= (투입 전 변량- 투입 후 변량)/ 투입 전 변량 x 100

# 

본 절에서는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 효과를 살펴 보겠다.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절편 모형을 통해 집 단 내 모형에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집단 간 모형에 국가수준 측정변인 을 투입하였다.

## 1)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순수효과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절편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46)

## 1수준 모형(국가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Prob[Rij \le 1 \mid \beta j] = \phi*1ij = \phi1ij$ 

Prob[Rij  $\leq 2 |\beta_j| = \phi^*2ij = \phi_j^*1ij + \phi_j^*2ij$ 

Prob[Rij  $\leq$  3 |  $\beta$ i] =  $\phi$ \*3ij =  $\phi$ 1ij +  $\phi$ 2ij +  $\phi$ 3ij

 $Prob[Rij <= 4 | \beta j] = 1.0$ 

φ1ii = Prob[행복감(1) = 1 | βi]

φ2ij = Prob[행복감(2) = 1 | βi]

φ3ij = Prob[행복감(3) = 1 | βi]

log[φ1ij/(1 - φ1ij)] = β0j + β1j\*(성별ij) + β2j\*(연령ij) + β3j\*(교육수준ij) + β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 6j\*(주관적사회계층ij) + β7j\*(사적대인신뢰ij) + β8j\* (사회적대인신뢰ij)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

<sup>46)</sup>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 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과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 불평등도,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전체평균으로 센터링 되었다.

(정부조직신뢰ij) +  $\beta$ 11j\*(비공식적집단관계vij) +  $\beta$ 12j\*(공식적집단관계vij) +  $\beta$ 13j\*(규범i)

log[φ2ij/(1 - φ2ij)] = β0j + β1j\*(성별ij) + β2j\*(연령ij) + β3j\*(교육수준ij) + β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 6j\*(주관적사회계층ij) + β7j\*(사적대인신뢰ij) + β8j\* (사회적대인신뢰ij)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 (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 12j\*(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3j\*(규범ij) + δ2

log[φ3ij/(1 - φ3ij)] = β0j + β1j\*(성별ij) + β2j\*(연령ij) + β3j\*(교육수준ij) + β4j\*(본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 6j\*(주관적사회계층ij) + β7j\*(사적대인신뢰ij) + β8j\* (사회적대인신뢰ij) + β9j\*(사회조직신뢰ij) + β10j\* (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 12j\*(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3j\*(규범ij) + δ3

##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β0j = γ00 + γ01\*(1인당GDPj) + γ02\*(청년실업률j) + γ03\*(소득불평등도j) + γ04\*(고등교육지출j) + γ05\*(훈련지출j) + u0j

 $\beta 1j = y10$ 

 $\beta 2i = y20$ 

 $\beta 3i = \chi 30$ 

 $\beta 4j = y40$ 

 $\beta 5j = y50$ 

 $\beta 6j = \gamma 60$ 

 $\beta 7j = y70$ 

 $\beta 8i = y80$ 

 $\beta 9j = y90$ 

 $\beta 10j = y100$ 

 $\beta 11j = y110$ 

 $\beta 12j = y120$ 

 $\beta 13j = y130$ 

 $\delta 2$   $\delta 3$ 

고정효과 분석 결과 사회지출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고등교육지출은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훈련지출(t=2.045, p<.10)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승수비	t
국가수준 측정변인				
절편(γ00)	-0.831	0.093	0.435	-8.868***
사회지출				
고등교육지출	0.152	0.238	1.165	0.641
훈련지출	1.829	0.894	6.228	2.045†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1인당 GDP	0.566	0.553	1.761	1.023
청년실업률	-0.036	0.028	0.964	-1.267
소득불평등도	1.849	1.134	6.356	1.630
개인수준 측정변인				
사회자본				
사적 대인신뢰	0.689	0.041	1.992	16.548***
사회적 대인신뢰	0.069	0.029	1.071	2.329*
사회 조직신뢰	0.139	0.047	1.149	2.934**
정부 조직신뢰	0.146	0.038	1.158	3.835***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0.085	0.019	1.089	4.449***
공식적 집단 관계망	-0.010	0.015	0.989	-0.682
규범	0.032	0.011	1.032	2.862**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0.230	0.033	0.793	-6.857***
연령	0.040	0.010	1.040	3.899***
교육수준	-0.015	0.011	0.984	-1.417
본인직업유무	0.094	0.036	1.098	2.614**
가장직업유무	0.070	0.045	1.073	1.568
주관적 사회계층	0.170	0.020	1.186	8.441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 변량(τ00)	0.327	0.107	263 (	216***
집단내 변량(σ2)		П2/3	203.2	
구분	표준편차		모형설명량(R	2)
투입전 집단 간 변량	0.169		36.69%	
투입후 집단 간 변량	0.107		<i>50.07 /</i> 0	

<sup>†</sup> p<.10 \*p<.05 \*\*p<.01 \*\*\*p<.001

<sup>\*</sup> 주: 모형설명량( $R^2$ )= (투입 전 변량- 투입 후 변량)/ 투입 전 변량 x 100

즉, 국가가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기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중 1인당 GDP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수준측정 변인을 투입한 결과 영향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대인신뢰(t=16.548, p<.001), 사회적 대인신뢰(t=2.329, p<.001), 사회 조직신뢰(t=2.934, p<.01), 정부 조직신뢰(t=3.835, 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t=4.449, p<.001), 규범(t=2.862, p<.001)이모두 여전히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후기 청소년기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효과에 관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107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 00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 =283.216, p<.001)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도 행복감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집단 간 변량은 투입 전 0.169에서 국가수준 측정변인과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0.107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국가특성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의 설명량( $\mathbb{R}^2$ )이 3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순수효과

다음은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절편 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47).

<sup>47)</sup>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과 1인당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전체평균으로 센터링 되었다.

##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ij = \beta0j + \beta1j\*(성별ij) + \beta2j\*(연령ij) + \beta3j\*(교육수준ij) + \beta4j\*(본 인직업유무ij) + β5j\*(가장직업유무ij) + β6j\*(사적대인신뢰ij) + β7;\*(사적대인신뢰ij) + β8;\*(사회적대인신뢰ij) + β9;\*(사회조직 신뢰ij) + β10j\*(정부조직신뢰ij) + β11j\*(비공식적집단관계망ij) + β12i\*(공식적집단관계망ii) + β13i\*(규범ii) + rii

##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β0j = y00 + y01\*(1인당GDPj) + y02\*(청년실업률j) + y03\*(소득불평등도j) + y04\*(고등교육지출i) + y05\*(훈련지출i) + u0i

 $\beta 1i = y10$ 

 $\beta 2j = y20$ 

 $\beta 3i = y30$ 

 $\beta 4j = y40$ 

 $\beta 5j = y50$ 

 $\beta 6j = y60$ 

 $\beta 7i = y70$ 

 $\beta 8j = y80$ 

 $\beta 9j = y90$ 

 $\beta 10j = y100$  $\beta 11j = y110$ 

 $\beta 12j = y120$ 

 $\beta 13i = y130$ 

#### 흔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ij = y00 + y01\*1인당GDPj + y02\*청년실업률j + y03\*소득불평 등도i + y04\*교육지출i + y05\*훈련지출i + y10\*성별ii + y 20\*연령ij + y30\*교육수준ij + y40\*본인직업유무ij + y50\*가 장직업유무ii + y60\*주관적사회계층ii + y70\*사적대인신뢰ii + y80\*사회적대인신뢰ij + y90\*SCSOTij + y100\*정부조직 신뢰ii + y110\*비공식적집단관계망ii + y120\*공식적집단관계 망ij + y130\*규범ij + u0j+ rij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출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동시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확장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사회지출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고등교육지출은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훈련지출 (t=3.318, p<.01)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가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지출이 중가한다고 해서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훈련지출 비율이 증가할 때 청소년은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행복감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다소 흥미 있는 결과는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고등교육지출과 더불어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교육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등교육지출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t=7.414, p<.001).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중 1인당 GDP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행복감에서도 국가수준 측정변인,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1인당 GDP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 수준이상의 경제수준을 가진 경제선진국 내에서는 국가의 부의 수준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Easterlin, 2005) 이스틸린의 역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청년실업률은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t=-2.085, p<.01).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에서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가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률은 앞에서 살펴본 행복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바 있다. 청년실업률과 훈련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취업·일자리 창출 정책이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24>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의 순수효과

그거중기		표준오차	L		
고정효과 국가수준 측정변인		エモエイ	t		
	7.185	0.072	99.738***		
절편(y00) 사회지출	7.100	0.072	99.730		
	0.231	0.186	1.241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2.322	0.186	3.318**		
군인시물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2.322	0.099	3.310		
기가구군학생 중세련인 1인당 GDP	0.200	0.422	0.001		
— <del>-</del>	0.390	0.433	0.901		
청년실업률	-0.046	0.022	-2.085†		
소득불평등도	2.470	0.888	2.781*		
개인수준 측정변인					
사회자본	0.400	0.020	4.0 000		
사적 대인신뢰	0.409	0.029	13.980***		
사회적 대인신뢰	0.116	0.021	5.534***		
사회 조직신뢰	0.159	0.033	4.696***		
정부 조직신뢰	0.277	0.027	10.113***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0.125	0.013	9.011***		
공식적 집단 관계망	-0.058	0.011	-5.153***		
규범	0.057	0.008	7.066***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0.001	0.024	0.075		
연령	-0.003	0.007	-0.438		
교육수준	0.059	0.008	7.414***		
본인직업유무	0.101	0.025	3.906***		
가장직업유무	0.177	0.032	5.469***		
주관적 사회계층	0.247	0.014	17.076***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집단간 변량(τ00)	0.257	0.066	286.974***		
집단내 변량(σ2)	1.508	2.275	200.9/4****		
구분	표준편차	모형설명량(R2)			
투입전 집단 간 변량	0.122	45.68%			
투입후 집단 간 변량	0.066	45.0	DO /0		

<sup>†</sup> p<.10 \*p<.05 \*\*p<.01 \*\*\*p<.001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소득불평등도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t=2.781, t<.05).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득불평등도와 행복감, 소득불평등도와 생활만족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부정

<sup>\*</sup> 주: 모형설명량(R²)= (투입 전 변량- 투입 후 변량)/ 투입 전 변량 x 100

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수준 측정변인으로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이 투입되어 통제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가지는 또 다른 측면의 특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도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변인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적 대인신뢰(t=13.980, p<.001), 정부 조직신뢰(t=10.113, p<.001),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t=9.011, p<.001), 규범(t=7.066, p<.001)이었다. 즉, 사적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관계망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규범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사회자본 중 사회적 대인신뢰는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t=5.534, p<.001).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함으로써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1인당 GDP,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국가효과가 고루 통제됨으로써 사회적 대인신뢰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조직신뢰 또한 개인수준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t=4.696, p<.001).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함으로써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1인당 GDP,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도가 통제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른 사회자본들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국가수준을 통제한 후 후기 청소년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난(t=-5.153, p<.001) 후기 청소년기 공식적 집단 관계망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교육수준(t=7.414, p<.001), 가장직업유무(t=5.469, p<.001), 주관적 사회계층(t=17.076, p<.001)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본인직업유무는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06, p<.001). 성별과 연령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에 관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066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286.974,\ p<.001)$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도 생활만족도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집단 간 변량은 투입 전 0.122에서 국가수준 측정변인과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0.066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국가특성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의 설명량 $(R^2)$ 이 4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삶의 질 통합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사회자본과 국가수준에서 사회지출로 측정된 사회정책이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후기 청소년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수준,국가수준의 설명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후기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복지감을 행복감,생활만족도로 살펴보았으며 사회자본의 하위변인을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으로 사회지출의 하위변인을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로 살펴보았다.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자본이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측정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 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측정 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 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 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자본이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 [연구문제 2] 사회지출(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행복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지출이 후기 청소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수준 측정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고등교육지 출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지출이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고 등교육지출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훈련지출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고등교육 지출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제2절. 논의

# 1. OECD 16개국별 주관적 복지감, 사회자본, 사회지출 수준

OECD 16개국의 후기 청소년 행복감 전체 평균은 3.25점(백분위 75.00점), 생활만족도 전체평균은 7.36(백분위 70.67점)으로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더 많은 사회적 배제와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관적 복지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cDonald & Marsh, 2005, Pohl & Walther, 2007). 행복감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영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었으며 한국은 일본, 독일과 더불어 최하위에 위치하였다. 생활만족도수준 또한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노르웨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핀란드, 캐나다 순이었으며 한국은 역시 최하위에 위치하여 한국 청소년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인다는 지적(정지범, 2011)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사회자본 평균은 사적 대인신뢰 3.27(백분위 75.66점), 사회적 대인신뢰 2.46(백분위 48.66점), 사회조직 신뢰 2.45(백분위 48.33점), 정부조직신뢰 2.43(백분위47.66점),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1.07개, 공식적 집단 관계망 0.64개, 규범 8.40(백분위 82.22점)으로 특히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조직신뢰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범은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자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사적 대인신뢰는 노르웨이가가장 높았고 이탈리아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대인신뢰는 뉴질랜드가 가장 높았고네덜란드가 가장 낮았다. 사회 조직신뢰와 정부 조직신뢰는 핀란드, 노르웨이가가 장 높았으며 독일이 가장 낮았다.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캐나다가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미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가장 낮았다. 한국 후기 청소년은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와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하위권에 위치하여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사회 조직신뢰와 규범은 상위권에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OECD 16개국은 GDP의 평균 1.11%를 고등교육정책에 GDP의 평균 0.49%를 훈련정책에 지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정책에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고등교육지출 비율은 미국, 캐나다,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훈련지출 비율

은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가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지출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훈련지출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훈련지출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고등교육지출 순위가 가장 낮아 고등교육정책과 직업훈련정책을 모두 활발히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고등교육정책 혹은 훈련정책을 택일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다층분석의 타당성 검토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행복감, 생활만족도를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다층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국가수준 변량을 분석한 결과 행복감의 전체 변량 중 4.1%, 생활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4.6%가 국가간 차이로 설명되고 있어 국가 표본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상당한 변량 수준으로 간주되는 5%(Duncan & Raudenbush, 1999)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hi^2$  검증 결과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행복감, 생활만족도가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다층분석을 실시해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며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3.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행복 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지적에 따라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독립적이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Diener & Diener, 1995, Şimşek, 2008, Pacek & Radcliff, 2008)이 타당함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 중 사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지적, 정서적 행복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적 대인신뢰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Leung 등(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적 대인신뢰는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의 경우 사적 대인신뢰 수준이 16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친족, 이웃관계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고도성장, 경쟁주의, 자원 부족, 개인주의 확산은 한국 사회의 좋은 자원을 일부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게 가족, 이웃은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생계를 의존하고 취업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 무관심, 가족폭력,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부족이 가족 내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가족교육이나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이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인신뢰 또한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서적, 인지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대인신뢰가 주관적 복지감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Yip 등(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인신뢰가 높다는 것은 곧 그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해 신뢰한다는 것을 말한다(Poortinga, 2006). 문제는 한국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대인신뢰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사적 대인신뢰의 경우 가족, 이웃 등에 대한 개입과 도움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사회전반의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보다 복잡한 기제를이해하지 못하고는 섣불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적 대인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 조직신뢰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행복에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사회 조직신뢰는 신문·텔레비전 등 언론매체, 종교단체, 환경·여성·인권·자선 등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한국의 사회 조직신뢰 국가 순위는 상위권이나 국가순위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16개 OECD 국가의 사회조직 신뢰수준이 낮아 개선이 불가피하다. 조직신뢰의 경우 개인의 노력이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신뢰는 후기 청소년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역시 행복에 중요한 영향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국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법제도, 중앙정부, UN 등에 대한 정부 조직신뢰와 복지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Hudson(2006)의 연구 또한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한국후기 청소년은 정부 조직신뢰 수준이 낮아 이러한 특성이 후기 청소년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참여하는 것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 친구와의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행복과 정적 상관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Groot et al., 2007; Helliwell & Putnam, 2004; Lelkes 2006; Lueng et al., 2011; Powdthavee 2008; Poortinga, 2006)와 일치한다. 후기 청소년은 다양한 종교기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특히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참여 크기는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 보다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에서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사회자본 중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유일한 변인이다. 즉,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Bjornskov(2006)가 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복지감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Tisenkopfs, Lace, Mierina, 2008)본 연구에서 공식적 집단 관계망 사회자본의 부정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즉, 의무, 이슈형성, 정치활동, 심리·정서·시간·금전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단체, 정당, 전문가 협회, 소비자 보호단체 등 참여는 후기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장려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규범 또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규범이 행복과 긍정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Leung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은 다른 사회자본 하위변인에 비해 규범 사회자본 수준이높게 나타났다. 높은 규범 수준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규범의 영향력은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보다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지출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훈련지출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고등교육정책 보다 훈련정책이 후기 청소년 인지적, 정서적 행복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상당한 데 정지범(2011)은 한국에서 지나친 학구열과 학력위주의 교육정책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박환보 등(2009)은 무조건적 고등교육지출 확대로 인한 고등교육 보편화가 의미 없는 학위공장이나 청소년수용소를 양산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노동시장과의 분리를 초래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성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지출의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으로써 위의 주장이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훈련정책 지출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고등교육정책 보다는 훈련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성별과 연령은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남 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이 증가하였으나 인지적 행복은 성별,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고 있는데(Blanchflower & Oswald, 2004; Flouri, 2004)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별로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인의 교육수준이 인지적 측면인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 실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인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수준의 효과가 앞으로의 미래나 목표에 영향을 받는 행복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현재의 삶의 행복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인 정서적 행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의 직업유무는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부모 직업유무 또한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Clark et al. 2008; Frijters et al.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행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감이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비교이론의 논의와 일치한다(Easterlin, 2003).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상대적 계층이 동일하면 행복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nglehart et al., 2008). 즉 행복은 개인의 소득보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인지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중 1인당 GDP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에서는 국가의 부의 수준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Bjørnskov, Dreher와 Fischer, 2008; Easterlin, 1974)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청년실업률은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는 훈련지출, 개인의 직업유무, 가장의 직업유무를 통제하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직업유무를 통제한 이후에도 국가 실업률이 개인의 복지감을 감소시키며 이는 한 국가의 실업률이 높을 경우 개인의 두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Blanchflower,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도는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소득불평등도와 행복감, 소득불 평등도와 생활만족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과는 대조된다. 즉 소득불 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이 복지감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는데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의 효과가 불평등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Clark(2003)와 Alesina 등(2004)은 미국과 영국에 서 소득불평등이 복지감을 증가시킨 것과 관련하여 이들이 불평등을 기회의 메시 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즉, 유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득불 평등이 기회로 간주되는 반면, 유동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경우 불평등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Dolan, Peasgood, & White, 2008). 후기 청소년기가 가능성과 희망,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는 시기인 만큼 소득불평등은 또 한 편 에서 자신이 경제상황이 나아질 경우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회와 변화 가능성만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지금 보다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 4.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OECD 16개국 후기 청소년 행복 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간모형, 연구모형 비교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모두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모두 투입했을 때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변인이 차이가 없는 것은 후기 청소년 행복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모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도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변인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이 있는데 이 변인들은 후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변인이다.

사회적 대인신뢰와 사회 조직신뢰는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대인신뢰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출이 감소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할수록 훈련지출이 증가할수록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대인신뢰가 낮아졌는데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고등교육지출, 훈련지출, 1인당 GDP,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국가효과가 고루 통제됨으로써 사회적 대인신뢰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조직신뢰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교육지출이 증가할수록, 훈련지출이 감소할수록, 1인당 GDP가 감소할수록, 청년 실업률이 감소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할수록 높아졌는데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의 효과가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인을 추가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인신뢰와 사회 조직신뢰는 동일 국가 내의 개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히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한 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회자본과 달리 노동단체·정당·환경보호단체·전문가협회 등에 관한 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한 후 부적 영향이 나타난 공식적 집단 관계망의 경우 국가수준의 변인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지출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고등교육지출은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훈련지출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가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지출은 개인수준에서나 국가수준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서나후기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관한 훈련지출은 후기 청소년기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영향은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 연령, 본인직업유무, 주관적 사회 계층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 성별, 연령, 본인직업유무는 여전히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친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국가수준 측정변인 중 소득불평등도가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교육수준,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본인직업유무는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수준 변인 중 훈련지출, 청년실업률 등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별과 연령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중 1인당 GDP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수준측정 변인을 투입한 결과 영향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수준 측정변인 중 주관적 사회계층의 효과와 사회자본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청년실업률과 소득불평등도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중 1인당 GDP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은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부적인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청년실업률과 훈련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취업·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아닐 것이다. 이에 개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크게 높지 않으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투자에 비해 훈련정책에 대한투자가 부족하여이로 인한 생활만족도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소득불평등도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득불평등도와 관련한 개인수준의 교육수준, 본인직업유무, 가장직업유무, 주관적 사회계층이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제3절. 연구의 함의

#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사회자본, 사회정책, 주관적 복지감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로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 통합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을 제시하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삶의 질 통합모델이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보다 체계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자본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자본 하위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Stolle, 2001) 사회자본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사회자본, 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방향성, 즉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삶의 질 통합 모델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자본, 사회정책 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주관 적 복지감의 하위 영역으로써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서로 다른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바 모델의 주관적 복지감 하위 영역으로 행복의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과 행 복의 인지적 요소인 생활만족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생 활만족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으나(Gundelach & Kreiner, 2004; Helliwell & Putnam, 2004) 본 연구 는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는 국가 별로 차이가 있으며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고려함에 있어 개인수준 변인의 특성 뿐 아니라 국가수준 변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삶의 질 통합 모델 내에 다층 구조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 다. 다섯째, 선행연구는 행복에 대한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상대적 영향 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삶의 질 통합모델은 이 중 사회자본만을 포함하고 있어 경 제자본, 인적자본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자본의 상대적 중요 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자본, 인적자본을 모델 내에서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사회자본이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후기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는 데서 가장 큰 연구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후기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사적 대인신뢰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회란 가족의 역할을 지역사회, 이웃이 함께 하는 사회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이웃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명제가 된 다. 청소년이 빈곤한 가족의 구성원일지라도 주위에서 끼니를 챙겨주거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청소년이 가족의 역기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방황이나 지역사회 비행 등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가족에 서 부족한 것을 이웃, 지역사회가 일정 부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적 대인신 뢰는 개인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영향력을 가지며 효과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 회자본 중 청소년 행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적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사회적 대인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대인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본 연구의 상관관계를 통해 예상해 본다면 무조건적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을 통해 청소년의 경쟁을 부추기는 대신 고등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되 욕구에 따른 진로와 선택을 중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되 기회와 유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보장하는 방안, 입법·사법·행정·군대·경찰 등국가의 정부조직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사회 조직신뢰를 향상시켜야 하는 데 조직신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회 조직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부 조직신뢰였다. 이는 국가적 조직에 대한 신뢰회복이 일반적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48). 이 외에도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의 크기도 사회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sup>48)</sup>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로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이 다양한 종교기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짐으로써 사회 조직신뢰가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국가수준에서 청년실업률과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이 종교기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활동 등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후기 청소년의 연령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비교적 여가시간에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취업난, 비싼 등록금, 부모의이른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다양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과 학업에 시간을 보내는 만큼 후기 청소년이 다양한 비공식적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시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홍보를 통해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연령들의 다양한 서비스 대상이 이용하여 후기 청소년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은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일반 사람이나 청소년들이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청소년의 이용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규범 정립에 힘을 써야 한다. 사회자본의 하위 변인 중 규범은한국 청소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위권에 위치한 유일한 변인이다. 즉 한국 청소년은 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에 대해높은 규범수준을 보이고 있다. 규범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른 사회자본 연구에비해 초기에 해당하는 만큼 선행 연구결과도 많지 않고 결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 후기 청소년의 행복에 규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특히 규범의 영향은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보다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규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가 사는지역 사회에서 그 정도의 규범이 통용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만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그 정도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사회전반에대해 궁정적이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이해될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행복감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따라 개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사회자본'과 개인에게 해가 되는 '나쁜 사회자본'을 구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후기 청소년기에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적 어도 이 결과에 따르면 '나쁜 사회자본'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관계망 참여가 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 행복에 다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자본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지나치게 과 다하여 효과에 비해 많은 노력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자원과의 활발하고 다양한 사회자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단체, 정당, 전문가 협회, 소 비자 보호단체 등 참여는 후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행복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후기 청소년기에 노동단체, 정당, 환 경보호단체, 전문가 협회, 인권 혹은 자선단체, 소비자 보호단체에 참여하기 보다 는 다양한 종교기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유리하였다. 공식적 집단 관계망의 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인식, 정치참여 역량,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본 연구의 주된 탐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다.

# 3. 정책적 함의

국가수준의 사회지출로 측정된 사회정책이 개인의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후기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고등교육정책 보다 훈련정책에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고등교육지출은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훈련지출은 행복감과 생 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진로·취업·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이 후기 청소년 행복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간접적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고등교육지출 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지출에만 치중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정책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훈련정책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은 국가가 무조건 고등교육을 장려하여 고학력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직업을 창출하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정책으로 인해 고학력이 된 청소년이 사회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고등교육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육수준은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의 교육수준이 인지적 측면인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 실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인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수준의 효과가 앞으로의 미래나 목표에 영향을 받는 행복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현재의 삶의 행복에 대해 만족하 는 수준인 정서적 행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다.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 뿐 아니라 정서적 행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이 향상이 청소년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만약 그 것이 어렵다면 무조건적 고등교육 강화는 오히려 청소년의 진로, 희망,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며 청소년의 고 학력으로 인한 직업기대수준과 직업현장의 현실과의 괴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후 기 청소년의 사회 통합 저해하고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위해요소가 될 가능 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성과 욕구를 인정하고 고등교육 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전문교육,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국가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34개국 중 WVS 데이터와 사회지출 통계를 지출하지 못한 국가 가 있어 모든 OECD 국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5 회차로 이루어진 국제적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회차 별 조사국가 누락으로 행복감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지 못하고 횡단적 관련 성을 살펴보는 데에 그쳤다. 추후 회차가 누적될 경우 이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국가수를 축소시켜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려는 후속 연구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사회지출와 관련하여 훈련지출을 본 연구의 대상인 19세-24세만을 대상으로 한 값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는 OECD가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가 보다세밀한 연령대상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생애주기별 국가수준 측정변인값을 활용할 수 있는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생애주기별 사회정책의 효과와 개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청소년관련 사회정책을 파악함에 있어 다양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혹은 변인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회정책을 지출의 측면에서만 살펴본 한계가 있다. 이에 청소년관련 복지노력과 관련하여 사회지출 이외의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관련 노력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데이터 마련도 시급하다.

종합컨대, 한국의 청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이유는 본 연구에 따르면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이 적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교육제도와 부족한 여가시간, 급속한 산업화로확대된 개인주의가 여기에 일조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국가가 후기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직업, 일자리 창출 정책에 비해 지나치게 고등교육정책에만 투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고등교육정책에만 치중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사회자본의 형성·확대와 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정책 노력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상진·정혜영(2002). 다층모형에서 예측변수 척도의 중심점 교정과 모수 추정치의 변화. 교육평가연구, 15(2), 21-42.
- 강영하(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 고경환(2005).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한국의 추계경험과 아시아국가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47-56.
- 권석만(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 구소, 36, 121-152.
- 권용현(2009). 삶의 질(QOL)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준(2008). 아동·청소년 투자에 관한 생애주기적 접근. 미래세대리포트, 1, 1-12. 김상균(2007).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
- 김상돈·전계영(2011). 한국인의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사회, 82(2), 171-204.
- 김상호(200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김승현(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66.
- 김연희·김선숙(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김영민(2007). 사회지출의 구조와 경제성장 요소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태(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파주: 한울.
- 김형용(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사회자본 맥락효과에 대한 해석. 한국사회학, 44(2), 59-92.
- 김혜원·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 학연구, 14(2), 269-297.
- 류연규·백숭호(2011).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한국아 동복지학, 36, 65-99.

- 박유진(2008). 사회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민(2003).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정부학연구, 9(2), 120-151.
- 박종민·김왕식(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267.
- 박종민·배정현(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박환보·양희준·김기석(2009). 고등교육 보편화의 두 사례: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고등교육체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19(1), 1-23.
- 박희봉·이희창·김동욱(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 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배병렬(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대경.
- 백승호·안상훈(2007).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공 공사회복지지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7-362.
- 변영우·박은하. (2010). 사회지출과 경제지출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와 WCS 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15-239.
- 서문기(2011). 국제지역의 발전연구에 관한 소고: 사회적 자본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4), 185-208.
- 심원술·전옥규. (2006). 보상의 공정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신뢰 유형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8(1), 69-98.
- 안상훈(2007). 한국 복지국가 지출증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2007년도 세계학술대회 자료집, 348-353.
- 여성가족부(2011).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경준·강창희(2009).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강창희(2010).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윤우석(2011). 실업과 소득격차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검증: 1995년에서 2008년까지 의 시계열 자료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2, 153-185.
- 이익섭·이병화·김성연(2009). 정신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성취수준이 직업유지기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9(2), 117-142.

- 정지범(2011). 국민 행복 결정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 정연구원.
- 정희정(2005). 이행노동시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과 관련된 이행. 국제노 동브리프, 3(6), 67-74.
- 주 OECD 대표부(2009). OECD의 노동시장정책. 서울: 주 OECD 대표부.
- 채구묵(2011).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3), 187-211.
- 최희경(2003).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유형과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행정논 집, 15(4), 835-858.
- 황선자·이철(2008). 세계화와 제도-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노총연구 원신서, 24, 321-332.
- Adema, W., and Ladaique, M.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92, OECD Publishing.
- Adema, W. (2006). OECD Social Capit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Paris: OECD Publishing.
- Ahn, S.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rsity Press.
- Alesina, A., Di Tella, R. D. and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10), 2009-2042.
- Azar, O. H. (2004). What sustains social norms and how they evolve?: The case of tipp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1), 49-64.
- Barnes, S. A., Lindborg, S. R., and Seaman Jr, J. W. (2006).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in small sample clinical trials. *Statistics in Medicine*, 25(2), 233-245.
- Barry, M. (2005). Youth Policy and Social Inclusion. Routledge.
- Bassani, C. (2003). Social capital theory in the context of Japanese children.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from

- http://www.japanesestudies.org.uk/articles/Bassani.html.
- Bassani, C. (2007). Five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theory as they pertain to youth studies.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17-34.
- Bassani, C. (2008). The influence of financial, human and social capital on Japanese men's and women's health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 191-209.
- Bassani, C. (2009). Young people and social capital. In: Furlong, A. (Eds)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 . Routledge.
- Bekkers, R., Völker, B., van der Gaag, M., and Flap, H. (2008). Social networks of participants in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Capital: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185-205.
- Bell, D., and Blanchflower, D. (2010). Youth unemployment: déjà vu?. IZA Discussion Paper, 4705.
- Benach, J., and Muntaner, C. (2007). Precarious employment and health: Develop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1(4), 276-277.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Bjø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1), 22-40.
- Bjornskov, C., Dreher, A., and Fischer, J. A. V.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Exploring different determinants across groups in society. *Social Choice and Welfare*, 30(1), 119-173.
- Blanchflower, D. G., and Burgess, S. M. (1996).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Great Britain in the 1980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17-38.
- Blanchflower, D. G., and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 Blanchflower, D. G., and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 life cycl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6(8), 1733-1749.
- Blandchflower, D. (2007).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 labour market.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47(1), 158-172.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 Bourque, L. B., and Clark, V. A. (1992). *Processing Data: The Survey Example*, 85,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 Brunie A. (2009). Meaningful distinctions within a concept: Relational, collective, and generalize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Research*, 38, 251-265.
- Card, D., and Lemieux, T. (2000).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based Analysi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astles, F. G. (2002). Developing new measures of welfare state change and refor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5), 613-641.
- Chang, L., McBride-Chang, C., Stewart, S., and Au,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82-189.
- Chapple, S. (2010).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 Chiuri, M. C., & Del Boca, D. (2008). Household Membership Decisions of Adult Children: Does Gender and Institutions Matter?. Collegio Carlo Alberto.
- Clark, A.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323-351.
- Clark, A. E. and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424), 648-659.
- Clark, A. E., Frijters, P. and Shields, M. A. (2007), *Income and Happiness : Evidence, Explanations and Economic Implications*. Hobart.
- Clark, A., Frijters, P. and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 95-144.
- Cohen, P. and Ainley, P. (2000). In the country of the blind?: Youth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3(1), 79 95.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4(4),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and Hoffer, T. (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Basic Books.
- Costa, P. T. and McCrae, R. R. (1988). Personality in adulthood: A six 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s on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53-863.
- Cos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Farley, J. (2007). Quality of life: An approach integrating opportunities, human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Ecological economics*, 61(2), 267-276.
- Cos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Farley, J. (2008). An integrative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research, and policy. *Surveys and Perspectives Integrating Environment and Society*, 1(1), 17 21.
- Coutts, A. (2009).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s) and Health: An Evidence-base. from http://www.ucl.ac.uk/gheg/marmotreview/consultation/Economics\_Active\_Labour\_ Market Policies.
- Cramm, J. M., and Nieboer, A. P. (2011).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n self-rated health among residents of an economically and health-deprived South African township.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0(1), 1-7.
- Cunningham, M. (2008).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 male breadwinner, female homemaker family model: Influences of women's employment and education over the life course. *Social Forces*, 87(1), 299-323.
- Di Tella, R., MacCulloch, R., Oswald, A.,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 335-34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and Lucas, R. E. (2000). Explaining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41-78.
- Diener, E., and Suh, E. M. (2003). 22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434, 237-245.
- Diener, E., Diener, M. and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 Diener, E., Helliwell, J. F. and Kahneman, D., (2010).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and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lan, P., Peasgood, T. and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 94-122.
- Duncan, G. J., and Raudenbush, S. W. (1999). Assessing the effects of context in studies of child and youth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29-41.
- Dutt, A. K., and Radcliff, B. (2009).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Edgar Elgar Publishing Limited.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David. M. W. (Edit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Academic Press.
- Easterlin, R. A.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 Easterlin, R. A.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29-443.
- Easterlin, R. A. (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4), 463-482.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ahey, T., and Smyth, E. (2004). Do subjective indicators measure welfare? Evidence from 33 Europea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6(1), 5-27.
- Ferguson, L. (2006). Increasing user choice or privatizing risk? The Antinomies of personal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3), 387-403.
- Ferrer-i-Carbonell, A. (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 997-1019.
- Ferrer-i-Carbonell, A., and Gowdy, J. M. (2007).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happiness. *Ecological Economics*, 60(3), 509-516.
- Fine, G. A. (2001). Difficult Reputations: Collective Memories of the Evil, Inept, and Controversi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ouri, E. (2004). Subjective well-being in mid-life: The role of involvement of and closeness to parents in childh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4), 335-358.
- Fordyce, M. (2005). A review of research on the happiness measures: A sixty second index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26, 373-399.
- Frey, B. and Stutzer, A.(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y, B. S., and Stutzer, A. (2000). Maximizing happiness?. *German Economic Review*, 1(2), 145-167.
- Frijters, P. and Beatton, T. (2008).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National Centre for Econometr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26, 1-23.
- Frijters, P., Liu, A., Meng, X., (2008). Are optimistic expectations keeping the Chinese happy? *NCER Working Paper*, 37, 342-361.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

89-97.

- Fussell, E.(2006). Comparative Adolescence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Brazil, Kenya, Mexico, the U.S., and Vietnam,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Gilman, R. and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311-319.
- Goldbeck, L., Schmitz, T. G., Besier, T., Herschbach, P. and Henrich, G. (2007).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ity of Life Research, 16(6), 969-979.
- Groot, W., van den Brink, H. M., and van Praag, B. (2007). The Compensating Income Variation of Social Capital. *CESifo Working Paper*.
- Gundelach P. and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 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Hagerty, M. R. (2000). Social comparisons of income in one's community: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of income and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64-771.
- Hagerty, M. R. and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wealth of nations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 Haller, M., and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169-216.
- Hannan, D., Raffe, D., and Smyth, E. (1996). Cross-national Research on School to Work Transitions: An Analytical Framework. OECD.
- Harpham, T., Grant, E. and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 Heady, B. and Wooden, M. (2004), The effects of wealth and income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Economic Record*, 80, S24-S33.
- Heckman, J. J., Lochner, L., and Taber, C. (1998). *Tax Policy and Human Capital Form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elliwell, J, and Huang, H. (2005).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with Well-Being. Presented at Goteborg

- conference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 Helliwell, J. F. (2004).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0896.
- Helliwell, J. F. (2005).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 Helliwell, J. F.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General and Introductory Economics*, 116(510), C34-C45
- Helliwell, J. F. (2008).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develop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4570.
- Helliwell, J. F. and Putnam, R.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London*, 359, 1435-1446.
- Hooghe, M., and Vanhoutte, B. (2010).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in Belgian communities: The impact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in Belgium.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1), 17-36.
-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 Inglehart, R. and Klingemann, H. D. (2000). Subjective Well-being by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Genes, Culture and Happiness. MIT Press.
- Inglehart, R. F. (2008).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 European Politics, 31(1-2), 130-146.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and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Kahneman, D. and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Kaufmann, D., Kraay, A., and Mastruzzi, M. (2003). *Governance Matters:*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2, 3106, World Bank.
- Kawachi, I., Kim, D., Coutts, A. and Subramanian, S. V. (2004). Commentary: Reconciling the three accounts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82-690

- Kennelly, B., O' Shea, E., and Garvey, E. (2003). Social capital, life expectancy and mortality: A cross-national examin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12), 2367-2377.
- King, G., Honaker, J., Joseph, A., and Scheve, K. (2001). Analyzing incomplete political science data: An alternative algorithm for multiple impu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49-70.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 Layard, Richard (2004) *Good Jobs and Bad Job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The Penguin Press.
- Lelkes, O. (2006). Knowing what is good for you.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preferences and the objective good.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 285 307.
- Leung, A., Kier, C., Fung, T., Fung, L., and Sproule, R. (2011).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3), 443-462.
- Leuven, E., and Oosterbeek, H. (2008). A Alternative method to estimate the returns to work-related training.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3, 423-434.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is, V. V., and Zhao, S. (2002).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SES, and adulthood experiences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3(8), 986-1005.
- Luttmer, E. F.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963-1002.
- Lyubomirsky, S., Sheldon, K. M. and Schkada,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11-131.
- MacDonald, R., and Marsh, J. (2005). Disconnected Youth?: Growing Up in

- Britain's Poor Neighbor hoods. Palgrave Macmillan.
- Marks, N., and Shah, H. (2004). A well-being manifesto for a flourishing society.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3(4), 9-15.
- Marmot, M. G. (2003). Understanding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6(3), S9-S23.
- Minkov, M. (2009). Predictors of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97 Nations. *Cross-Cultural Research*, 43(2), 152-179
- Morgan, S. L., and Sørensen, A. B. (1999). Parental networks, social closure, and mathematics learning: A test of Coleman's social capital explanation of schoo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3), 661-681.
- Morrow, V. (1999). Conceptualizing social capital in relation to the well 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critical review. *The Sociological Review*, 47(4), 744-765.
- Nettle, D. (2005). *Happiness: The Science Behind Youth Smile*. Oxford University Press.
- Ng, Y. (2008). Happiness studies: Ways to improve comparability and some public policy implications. *Economic Record*, 84(265), 253-266.
- O'Connell, M. (2004). Fairly satisfied: Economic equality, wealth and satisfac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3), 297-305.
- OECD. (2007).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 Interpretive Guide. OECD.
-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 Oishi, S., Diener, E., and Lucas, R. E. (2007). The optimum level of well-being: Can people be too happ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4), 346-360.
- Oishi, S., Schimmack, U., and Diener, E. (2012). Progressive taxation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3(1), 86-92.
- Oswald, A. J. and Powdthavee, N. (2008). Does happiness adapt? A longitudinal study of disability with implications for economists and judges. *Journal of Public Economy*, 92(5), 1061 1077.
- Ouwenell, P. (2002). Social security and well-being of the unemployed in 42 na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2), 167-192

- Ovasaka, T. and Takashima, R. (2006). Economic policy and the level of self-perceived well-be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308-325.
- Pacek, A. and Radcliff, B.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179-191.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Paxton, P(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88-127.
- Plagnol, A. (2010). Subjective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Conceptualizations and evaluations. *Social Research*, 77(2), 749-768
- Pohl, A., and Walther, A. (2007). Activating the disadvantaged. Variations in addressing youth transitions across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6(5), 533-553.
- Poortinga, W. (2006). Social capital: An individual or collective resource for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2(2), 292-302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owdthavee, N. (2008). Putting a price tag on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urs: Using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o value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o-Economics*, 37(4), 1459-1480.
- Proctor, C. L., Linley, P. A., and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 Put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Putnam, R. D., and Goss, K. A. (2002). Democracies In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Raffo, C. and Reeves, M. (2000). Youth transitions and social exclusion: Developments in social capital theory. *Journal of Youth Studies*, 3(2), 147 166.
- Raudenbush, S. W., and Bryk, A. S. (2001).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age Publications.
- Ream, G. L. (2005).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d quality of youth-parent inter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171-179
- Rubin, D. B., and Little, R. J. (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Wiley and Sons.
- Rus, A. and Iglic, H. (2005). Trust, governance and performance: The role of institutional and interpersonal trust in SME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ology*, 20(3), 371-91.
- Sandvik, E., Diener, E., and Seidlitz., L. (1993). Subjective well-being: The Convergence and stability of self-report and non-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61, 317-342.
- Schafer, J. L. (1999). Multiple imputation: a primer.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8(1), 3-15.
- Schwarze, J., and Häarpfer, M. (2007). Are people inequality averse, and do they prefer redistribution by the state? Evidence from German longitudinal data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ocio-Economics*, 36(2), 233-249
- Schyns, P. (2002). Wealth Of nations, individu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in 42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1), 5-40.
- Seligman, M.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 Sennett, R. (2003). Respect in A World of Inequality. Norton.
- Shedler, J., Mayman, M., and Manis, M. (1993). The illusion of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8(11), 1117.
- Shildrick, T. and MacDonald, R. (2006). In defence of subculture: young people, leisure and social divis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9(2), 125-140.

- Sievert, S. (2008). Education and Happiness.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Stoll, M. A. (2001). Race, Neighborhood Poverty, and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Springer.
- Stolle, D. (2002). Trusting strangers: The concept of generalized trust in perspective. *OZP-INSTITUT FUR STAATS UND POLITIKWISSENSCHAFT*, 31(4), 397-412.
-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1), 89-109.
- Suldo, S. M., and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4.
- Tisenkopfs, T., Lace, I. and Mierina, I. (2008). Social capital, In: van der Ploeg, J. and Marsden, T. (Eds) *Unfolding Webs : the Dynamics of Regional Rural Development*. Gorcum.
- Ullman, C., and Tatar, M. (2001).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sraeli adolescent immigrants: A report on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4), 449-463.
- UNICEF(2006).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UNICEF.
- Uphoff, N. (2000).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orld Bank.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ois, R. F., Zullig, K. J., Huebner, E. S., and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iol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5(4), 353-366.
- Veenhoven, R.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2, 91-125.
-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Presentation at OECD Conference on Measurability and Policy Relevance of Happiness, April 2-3, Rome.
- Veenhoven, R.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Journal of

- Happiness Studies, 11(5), 605-629
- Verde, M. (2010). Analytical framework for youth policies. *Social policy Research Brief.* Government of Canada.
- Walther, A. (2006). Regimes of youth transitions. Young, 14(2), 1-19.
- Whitley, R., and McKenzie, K. (2005). Social capital and psychiatry: Review of the literatur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3(2), 71-84.
- Winkelmann, L. and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 Wolfers, J. (2003). Is Business Cycle Volatility Costly? Evidence from Surveys of Subjective Wellbe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World Bank.
- Worth, N. (2009). Understanding youth transition as "Becoming": Identity, time and futurity. *Geoforum*, 40(6), 1050-1060.
- Yip, W., Subramanian, S.V., Mitchell, A. D., Lee, D. T. S., Wang J., and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4, 35-49.
- Zullig, K. J., Valois, R. F., Huebner, E. S., and Drane, J. W. (2005). Adolescen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erceived satisfaction with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Aspects of Treatment, Care and Rehabilitation*, 14, 1573-1584.
- Şimşek, O. F. (2008). Happiness revisited: Ontological well-being as a theory-based construc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05-522.

# [부록1] 주요변인 국가별 차이 사후검증 결과

	사후검증
구분	(Scheffe)
주관적 복지감	I
행복감	영국>하국, 프랑스>하국,
앵국십	중국/연국 <i>, 프랑스</i> /연국 <i>,</i>
생활만족도	노르웨이>한국, 핀란드>한국, 캐나다>한국, 네덜란드>한국, 뉴질랜드>한국, 스페인>한국
사회자본	
사적 대인신뢰	노르웨이>독일, 노르웨이>이탈리아, 노르웨이>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노르웨이>한국, 프랑스>이탈리아, 핀란드>이탈리아, 스페인>이탈리아, 캐나다>이탈리아
사회적 대인신뢰	뉴질랜드>이탈리아, 뉴질랜드>한국, 뉴질랜드>네덜란드, 뉴질랜드>독일, 스웨덴>독일, 스웨덴>네덜란드, 스웨덴>이탈리아, 스웨덴>한국, 노르웨이>독일, 노르웨이>한국, 노르웨이>이탈리아, 프랑스>독일, 프랑스>이탈리아, 프랑스>한국, 프랑스>네덜란드, 영국>독일, 영국>이탈리아, 영국>한국, 영국>네덜란드, 핀란드>독일, 핀란드>이탈리아, 핀란드>한국, 필란드>네덜란드, 호주>독일, 호주>한국, 호주>네덜란드, 캐나다>독일, 캐나다>한국, 캐나다>네덜란드
사회 조직신뢰	핀란드>독일, 핀란드>스페인, 노르웨이>독일, 캐나다>독일, 캐나다>스페인
정부 조직신뢰	핀란드>프랑스, 핀란드>독일, 핀란드>한국, 핀란드>네덜란드, 핀란드>스페인, 핀란드>영국, 핀란드>스페인, 노르웨이>독일, 캐나다>프랑스, 캐나다>독일, 캐나다>한국, 한국>이탈리아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캐나다>프랑스, 캐나다>독일, 캐나다>이탈리아, 캐나다>일본, 캐나다>스페인, 스위스>스페인, 핀란드>프랑스, 핀란드>일본>, 핀란드>스페인 뉴질랜드>스페인, 호주>프랑스, 호주>스페인, 미국>스페인, 노르웨이>스페인, 스웨덴>스페인, 네덜란드>스페인, 한국>스페인, 영국>스페인
공식적 집단 관계망	미국>일본, 미국>한국, 미국>스페인, 미국>이탈리아, 미국>독일, 캐나다>독일, 캐나다>이탈리아, 캐나다>일본, 캐나다>한국, 캐나다>네덜란드, 캐나다>스페인, 호주>독일, 호주>스페인
규범	일본>프랑스, 네덜란드>프랑스, 이탈리아>프랑스, 한국>프랑스, 캐나다>프랑스, 스페인>프랑스, 스위스>프랑스, 호주>프랑스

# [부록2] 개인수준 측정변인 결측치 비율 및 기술통계치

#### <부표1> 개인수준 측정변인 결측치 비율 및 기술통계치

		주관적	복지감				사회자본						게이스	준측정 통제변	01	
대입수		행복감	국시점 생활 만족도	사적 대인 신뢰	사회적 대인 신뢰	사회 조직 신뢰	자회사는 정부조 직신뢰	비공식 적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본인직업 유무	: <sup>1</sup> 가장직업 유무	주관적 사회계층
	M	3.25	7.36	3.27	2.46	2.45	2.43	1.07	.64	8.40	.47	21.53	5.61	.46	.87	2.93
결측치	(S.D)	.568	1.6	.44	.63785	.45	.56	.99	1.19	1.54	.49	1.68	1.90	.49	.33	.86
대체전	사례수	1617	1617	1489	1380	1333	1493	1596	1576	1569	1617	1617	1608	1550	817	1223
	(결측률)	.0	.0	7.9	14.7	17.6	7.7	1.3	2.5	3.0	.0	.0	.6	4.1	49.5	24.4
1	M	3.25	7.36	3.27	2.45	2.44	2.43	1.07	.65	8.40	.47	21.53	5.60	.46	.80	2.89
1	(S.D)	.56	1.63	.45	.65	.44	.55	.99	1.19	1.52	.49	1.68	1.90	.49	.39	.87
2	M	3.25	7.36	3.27	2.46	2.45	2.43	1.07	.65	8.39	.47	21.53	5.61	.46	.83	2.88
2	(S.D)	.56	1.63	.450	.64	.44	.55	.99	1.19	1.53	.49	1.68	1.89	.49	.37	.90
3	M	3.25	7.36	3.26	2.46	2.45	2.43	1.06	.66	8.41	.47	21.53	5.60	.45	.84	2.91
3	(S.D)	.56	1.63	.450	.64	.44	.56	.99	1.19	1.52	.49	1.68	1.90	.49	.36	.87
4	M	3.25	7.36	3.27	2.46	2.44	2.43	1.07	.65	8.40	.47	21.53	5.60	.46	.83	2.87
4	(S.D)	.56	1.63	.45	.64	.44	.56	.99	1.19	1.53	.49	1.68	1.90	.49	.37	.89
5	M	3.25	7.36	3.26	2.46	2.44	2.43	1.07	.66	8.40	.47	21.53	5.61	.45	.80	2.91
3	(S.D)	.56	1.63	.46	.648	.43	.56	.99	1.19	1.52	.49	1.68	1.89	.49	.40	.87
	M	3.25	7.36	3.27	2.45	2.44	2.43	1.07	.66	8.39	.47	21.53	5.61	.46	.84	2.88
6	(S.D)	.56	1.63	.451	.64	.44	.56	.99	1.19	1.53	.49	1.68	1.89	.49	.37	.87
7	M	3.25	7.36	3.27	2.46	2.44	2.43	1.07	.65	8.39	.47	21.53	5.60	.46	.82	2.88
1	(S.D)	.56	1.63	.461	.646	.44	.55	.99	1.18	1.52	.49	1.68	1.90	.49	.38	.87
o	M	3.25	7.36	3.27	2.46	2.44	2.43	1.07	.66	8.39	.47	21.53	5.61	.45	.83	2.91
8	(S.D)	.56	1.63	.453	.65	.43	.55	.99	1.19	1.53	.49	1.68	1.89	.49	.37	.87
9	M	3.25	7.36	3.27	2.46	2.44	2.43	1.07	.66	8.40	.47	21.53	5.61	.46	.84	2.90
7	(S.D)	.56	1.63	.45	.64	.43	.56	.99	1.19	1.53	.49	1.68	1.90	.49	.36	.87
10	M	3.25	7.36	3.28	2.45	2.44	2.42	1.07	.65	8.40	.47	21.53	5.61	.46	.82	2.89
10	(S.D)	.56	1.63	.44	.64	.43	.559	.99	1.19	1.53	.49	1.68	1.89	.49	.38	.88

#### **Abstract**

#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xpenditure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 Evidence from 16 OECD Countries-

Seo, Jeong 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policy as efforts of society and the country to enhanc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late adolescents.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tegrated model of quality of life that explains subjective well-being of the individuals an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subjective well-being can be an important tool for social capital and social policy to satisfy such needs and to provide such opportunities. This research focuses particularly on the late adolescent period in the life cycle stages.

The individual level analysis data of this research are the World Value Survey of University of Michigan which has surveyed more than 80 countries of the world every five years since 1981 on the questionnaire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e analysis data of the country level variables are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07) and OECD Statistical Database(2012). The individual level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the late adolescents aged 19-24 years; the

country level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16 OECD countries. The number of the late adolescent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1,617 and the 16 OECD countries are Australia,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Japan, South Korea,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hat effect does the social capital (private interpersonal trust, social interpersonal trust, social organizational trust, governmental organizational trust, informal group network, formal group network, norms) hav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sense of happines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ate adolescents?

Second, what effect do the social expenditures, (educational expenditure, training expenditure) hav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sense of happines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ate adolescents?

As the methods of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for Window 18.0 program, and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LM 7.0 for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is research, as the two item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feeling of happiness and the life satisfaction were examined, and South Korea ranked the lowest in all two items, the feeling of happiness and the life satisfaction, so it can be seen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eeling of happines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And for the analysis in this research, the social capital was divided roughly into interpersonal trust, organizational trust, network, and norms, and the interpersonal trust was divided into private and social interpersonal trust; the organizational trust was divided into social an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al trust; and the network was divided into informal group and formal group network. It was found that the late adolescents of the OECD 16 countries relatively trusted people they know but did not trust people they do not know, the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mass media, social groups, an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e level of norm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e results of analyzing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training expenditures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outh Korea which had high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s on higher education were the lowest in training expenditures. On the other h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 Norway which were low in expenditures on higher education were found be high in training expenditures.

The government-invested expenditures on higher education represented by universities were not helpful to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late adolescents. On the other hand, the training expenditures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late adolescents, and these effects continued even after the individual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job of the individuals,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ocial capital were controlled.

The private interpersonal trust which is to trust people who are known to families, neighbors, and the individuals; the social interpersonal trust which is to trust general people; the social organizational trust which is to trust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religious organizations, the mass media,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al trust which is to trust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army, the police,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political parties, the congress; the number of informal group networks where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religion, culture, art, leisure, and sports; the level of awareness of social norms were all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late adolesc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formal group networks such as labor organizations, the political parties, environmental groups, experts associations in which people actively participate did not have effect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late adolescent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ate adolescents were not raised just because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investments in higher education that is represented by universities, and when the training expenditures with regard to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creased, the adolescents highly perceived the life satisfaction, showing the same results as in the case of the feeling of happiness.

The higher the private interpersonal trust which is to trust people who are known to families, neighbors and the individuals, and the higher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al trust which is to trust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army, the police,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political parties, the congress, and the more active in participation in informal networks such as religion, culture, art, leisure, sport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norms,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was.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larger the formal group networks such as labor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environmental group, expert associations in which people actively participate,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became. The other social capital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of the adolescents whereas participating in formal group in the late adolescent period can harm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unlike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happiness focusing on psychological, economic, and political variables, it focused on social policy and social capital that hav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and confirmed the intervention point where social welfare science can also intervene positively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based on this, present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happiness can be promoted in diverse aspects.

Second, this research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grasped the fact that the late adolescent period is the period of beginning the transition to advanced school or school to job, and examined the government's welfare efforts focusing on educational and training expenditures which are important to them.

Third, this research wa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happiness researches made on all age groups and focused only on the adolescent period and the social capital and social expenditures applicable to the adolescent period, and was able to present the variables that can be of practical help to establishing the policy schemes to promote the happiness of the adolescents.

Keywords: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Feeling of Happiness, Social Capital, Social Expenditure, HLM, HGLM

Student Number: 2007-30059